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10:00~17:00

■ 장 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10:00~17:00

■ 장 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추진단장 이배용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름다운 4월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도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오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재청 및 1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과 9개 서원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과 문화재청은 서원의 교육문화유산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한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4월 18일에는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우선등재추진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 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추진단 발족 2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서원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원문화의 계승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모든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육유산을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한 논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가한 선생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주요 추진 경과

년도	제 목	주요 내용
2009.09.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자문회의	- 문화재청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 제안
2010.10.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1차)	-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및 사업계획 관련 워크숍
2010.1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2차)	-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논의
2011.0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3차)	-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재관련 조언 및 지원
2011.02.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4차)	- 추진 로드맵과 주요사업 계획 협의
	서원 대표자 심포지엄 개최	- ‘서원가치 재발견을 위한’ 서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2011.03.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5차)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2011.04.	대통령 보고 (2011.04.0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주비위원회 발족식 (2011.04.14.)	- 한국의서원세계유산주비위원회 발족
2011.09.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2011.10.	서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12.	제1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한국의 서원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잠정목록 등재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확정
2012.0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2012.04.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 발족식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06.	제3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2012.08.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 등재 신청서 국문/영문 보고서 작성
2012.11.	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2.	해외 유사유산 답사 : 일본, 중국	-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 유교 문화권
2013.03.	제5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세계유산 등재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4.	국내(전국) 학술대회	-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013.05.	국제 학술대회	-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3.06.	해외 유사유산 답사 : 모로코, 터키	-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 이슬람 문화권
2013.08.	한국의 서원 도면 제작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부합하는 도면 제작
2013.09.	한국의 서원 사진 제작	-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대상 서원의 사진 제작
2013.10.	도동서원 학술대회	- 도동서원의 재조명 (주최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2013.1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 등재신청 후 각 서원의 역할
	서원 도록 3종 제작	- 현판 기문 / 고서 책판 / 제향의례 도록 제작
2013.1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우선 등재추진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2014.0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 서원활성화 활용사업의 필요성과 방법
	서원 총서 발간	- 주제별, 서원별 각 1종씩 제작
2014.04.	국내학술대회 : 서원문화의 계승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 한국학중앙연구원

프로그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시간	주요 내용
1부	10:00-10:30	개회식
	10:30-10:50	기념촬영(break time)
	10:50-11:30	기조강연 1 :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강연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1:30-12:00	제1주제 :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발표 :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토론 :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2:00-12:30	제2주제 :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등재서원을 중심으로) 발표 :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12:30-13:00	제3주제 :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발표 :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연구위원
	13:00-14:00	오찬(한국학중앙연구원장 주최)
2부	14:00-14:30	제4주제 :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토론 :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14:30-15:00	제5주제 : 불교문화와의 만남(템플스테이) 발표 : 전병길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15:00-15:20	중간휴식
3부	15:20-16:50	종합토론 : 서원 문화의 계승과 서원 교육의 활성화 방안 좌장 : 정만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제1부〕

- 기조강연 1 :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1
이상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제1주제 :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9
김덕현(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제2주제 :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등재서원을 중심으로) 45
박소현(서울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57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제2부〕

- 제4주제 :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75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 제5주제 :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93
전병길(동국대학교 교수)
이왕기(목원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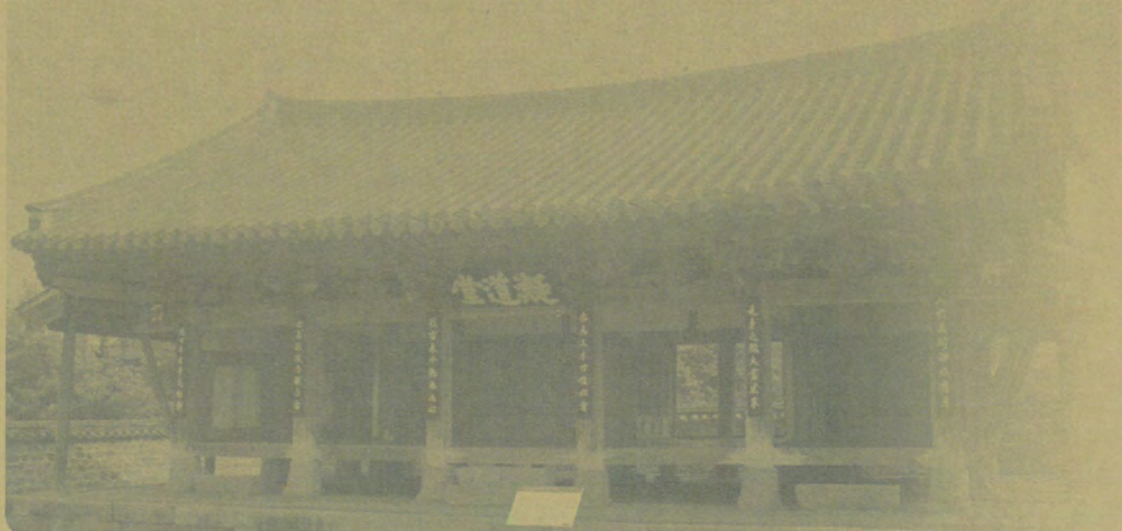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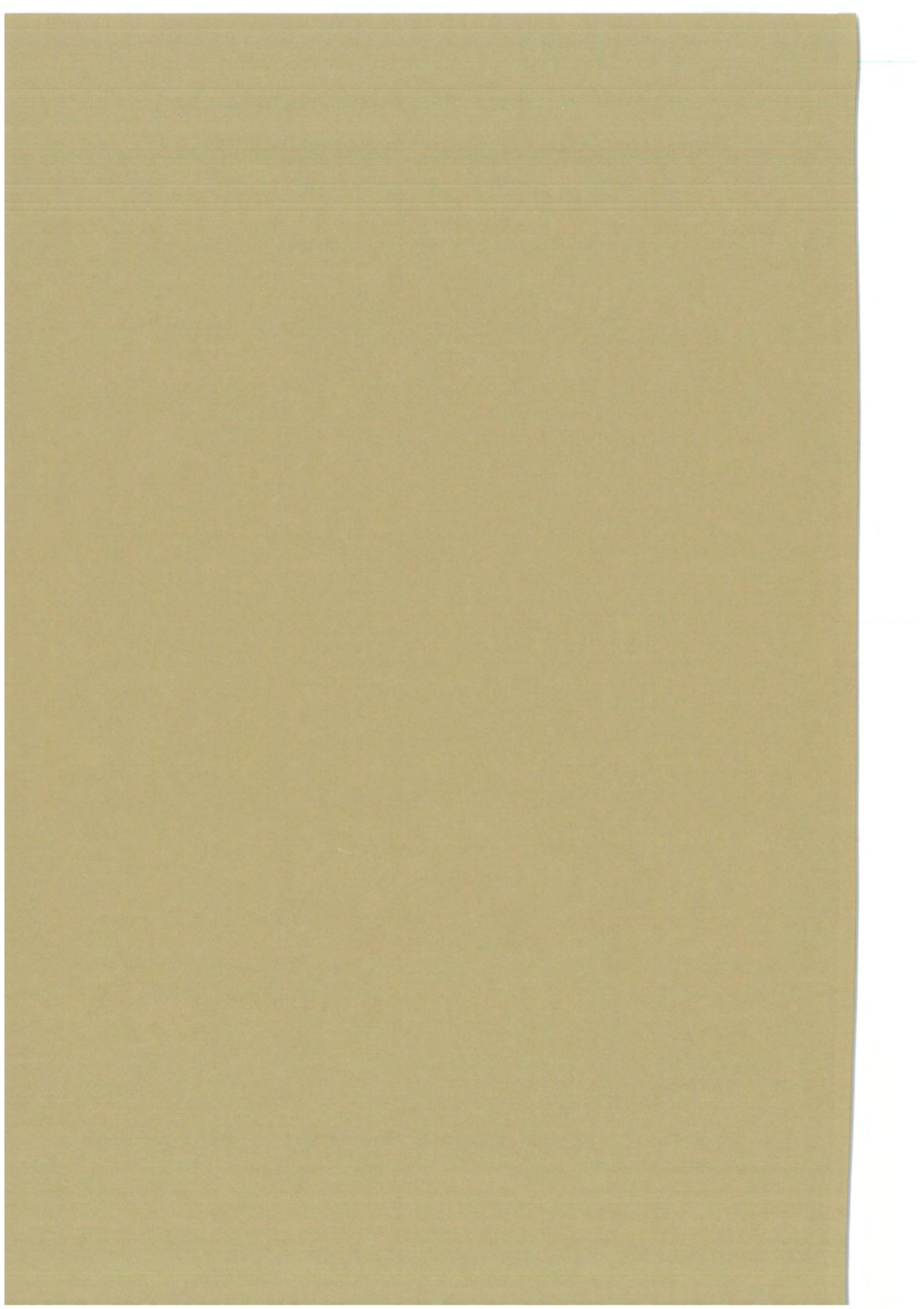
• 기조강연 1 •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과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한국의 9개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예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서원’은 2016년 6월 말 경 개최되는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등재된 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물론이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유의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119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sustainable us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산이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ecologically and culturally sustainable)’하고, ‘유관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ies concerned)’ 그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지속가능’이란 해당 유산이 현 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생태 및 문화적 관점에서 그 특성이 유지,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운영지침은 유산의 활용이나 용도 변경은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필요성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활용할 경우 그 유산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활용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어떤 원칙하에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자는 먼

저 '한국의 서원'이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등재기준 중에서 (ii), (iii), (iv), (vi)항에 대해 충족시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림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에 나타난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 절제되고 검박한 형식의 건축미 등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 장수(藏修) 학습, 한국인의 자연관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현존하는 600여 개의 한국의 서원 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iii)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백운동서원(건립 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음)이 창건된 이후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서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 주변 자연과 천인합일 할 수 있는 산수경관을 갖춘 곳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서원이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공간을 형성한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表象)의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 전통이 반영된 교육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현재 600여 개의 서원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iv)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식(遊息)공간, 강학(講學)공간, 제향(祭享)공간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장수(藏修)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경사진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각 서원이 자리한 입지 조건에 따라 계경(溪景) 입지, 산경(山景) 입지, 강경(江景) 입지, 야경(野景) 입지로 구분되는 서원 입지와 경관의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곳에 자리한 서원은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람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유형에 속한다.

(vi)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寶庫)이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은 장수(藏修)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기능 못지않게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는 지식의 창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서원의 장서(藏書) 제도 및 출판문화는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서원이 지방문화 센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숭유(崇儒)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우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향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제향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경서(經書)의 강학과 선현의 제향을 통한 교육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사람들의 활동무대였다. 서원은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각종 사회 교화 활동이 펼쳐졌던 곳이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향약과 향음주례가 행해진 곳, 의병의 격문과 정치적 사회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연명 장소가 작성된 곳, 다양하고 격렬한 학문 토론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상 언급한 등재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이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한국의 9개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의례, 사상, 전통과 유형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사상과 활동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 한다.

이상 제시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세계유산 운영지침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반을 둔 한국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의 현재적 활용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어떤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제안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무대,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그것은 ‘연속유산’이 된다. 한국의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이유는 9개 서원이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그 요건을 각각 잘 구비하였지만, 9개 서원의 특성을 모두 합치면 강학, 제향, 배향 인물, 입지 등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서원의 온전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의 현재적 활용은 9개 각 서원의 특성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유형적 측면 뿐 아니라, 사상, 정신, 의례, 무형유산 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유산을 건물 위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서원이 가진 무형적 가치를 방문객이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향 인물과 관련된 제반 사항, 서원 여러 곳에 담긴 상징성 등을 포함한 유무형 유산을 연계한 활용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속한 문중, 후손의 역할 그리고 전시관, 방문객 센터, 자료관(아카이브) 등의 건립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은 물론 유산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유산은 시행 당시에는 문화유산의 경우 기념비적인 탁월한 가치를 가진 것만 중시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유산이 지닌 유형적인 특성 외에 유산의 무형적, 정신적, 상징적 가치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런 측면에서 그 가치가 중요하고,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7 October 2003)’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활용도 중요하다.

한국의 서원은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중요한 유산이다. 생태, 친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서원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설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서원은 개발, 국토계획 등의 올바른 방안 수립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친환경적인 자연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는 ‘서구의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지역과 국가의 인문적인 사항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마침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에 속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의 모색도 중요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곧 유산의 보존과 직결된다. 무엇보다도 유산의 보존은 경제 논리에 의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곤 하였다. 그런데, 유산의 보존이 개발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을 만드는 일이 더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 도심 재활성화, 관광 상품화에 따른 수익 발생, 지역 내 건물의 자산 가치 상승, 지역 내 소기업 육성 효과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참고가 되는 연구 성과이다.

유산의 활용이 중요시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유산이 지금도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산의 활용은 미래 세대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유산 보호와 관리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자기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 진정한 창조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 제1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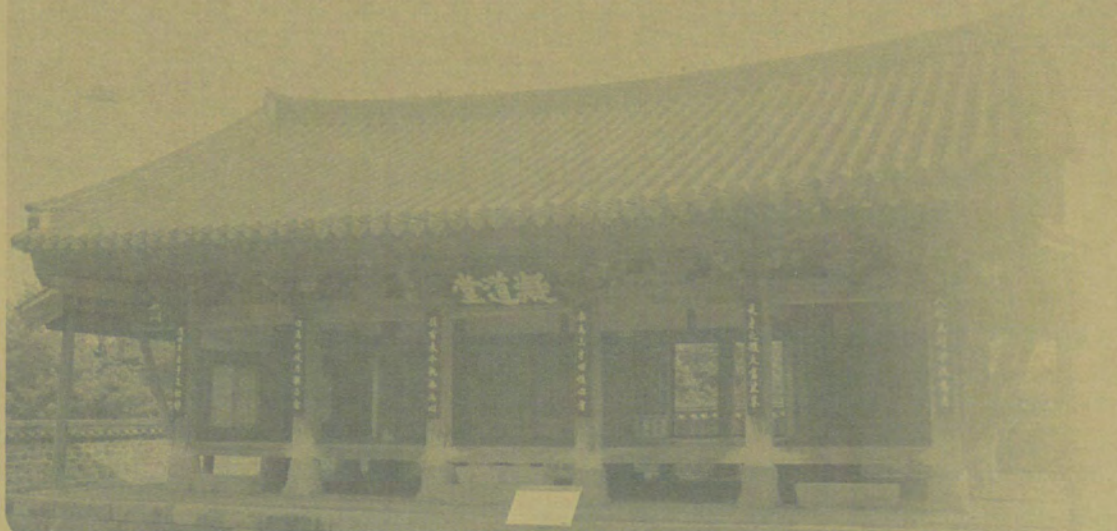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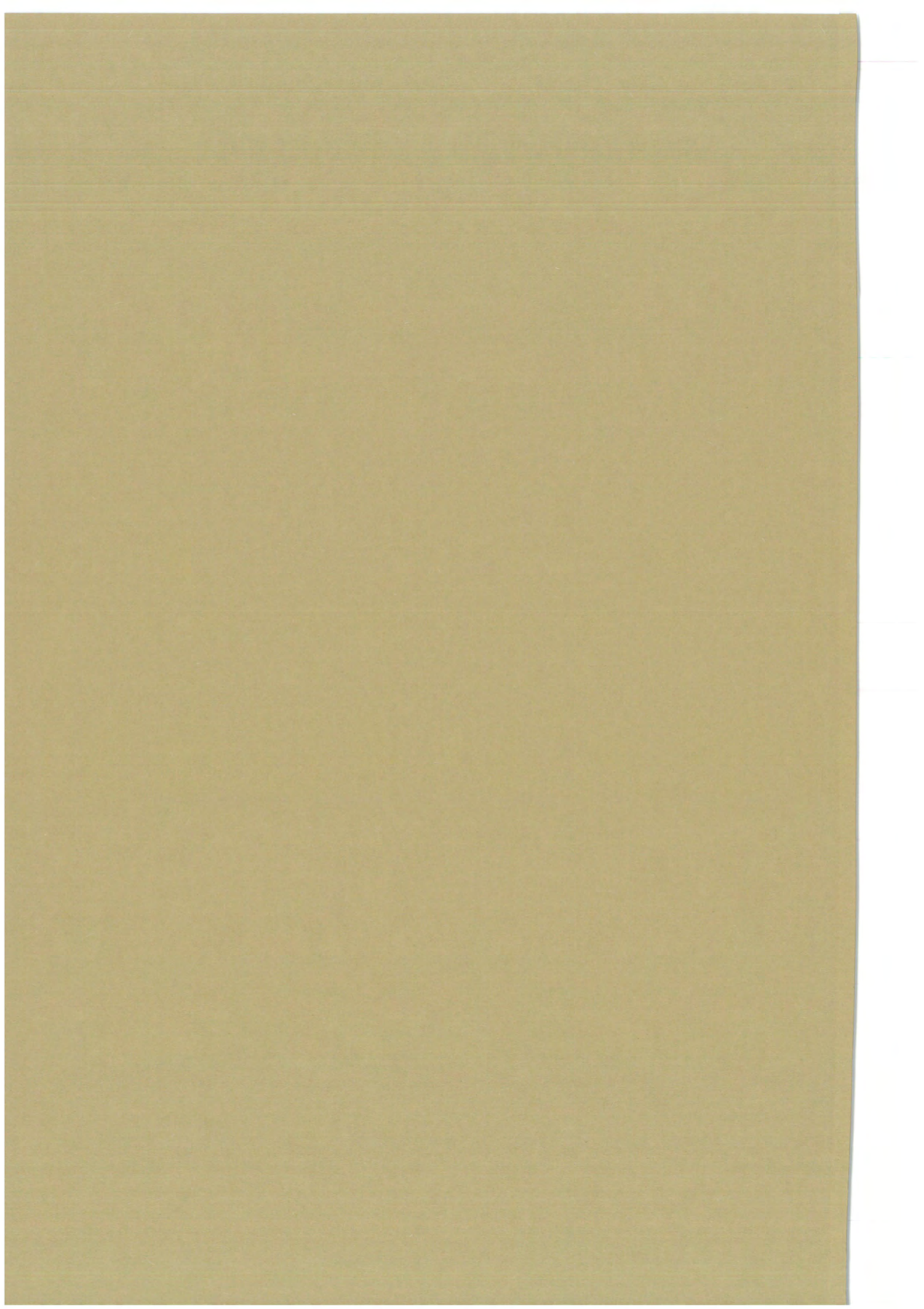
김 덕 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정 순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김 덕 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도입

오늘 저는 유학의 가르침 곧 유교의 현대적 활성화, 특히 서원에서의 교육 전통의 부흥에 대하여 의견과 제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교는 다른 종교적 사상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곧, 자기 성찰과 자기 계발에 기초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역할과 공자의 인(仁) 사상에서 도출된 인간이 중심이 된 정신적·사회적·우주론적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인류의 스승인 예수나 석가와 달리, 공자는 자신을 지칠 줄 모르는 끈기 있는 학생으로 표현하였다.(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 『論語』 「述而」 2장). 또 그는 자신이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我非生而知之者 - 『술이』 19장)”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람됨을 “공부에 빠지면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움 때문에 근심을 잊고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다.(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 『술이』 18장)”고 하였다. 이처럼 유교는 배움의 철학이고 평생 배움에 대한 지혜이다. 공자는 인(仁)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 『논어』 「顏淵」)” 그리고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도록 하라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하였다. ‘인’을 주로 사람간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신유학의 송나라 유학자들은 “인이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어느 것 하나도 나 아닌 것은 없다(仁者天地萬物爲一體 幕非己也)”,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모든 사물들은 나의 동료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 하였다.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었던 공자의 인(仁)을 인문학적 생태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저는 이러한 유교의 전통, 즉 교육의 역할과 인문학적 생태사상이 현대 사회 특히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처하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 활성화 하자는 주장의 진정한 의의는 새로운 유학이 결코 사회적 유한층(有閑層)이나 노년층의 기호에 부응하거나, 회고적 문화 혹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역시 다른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입장에 서서, 현대 인류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지혜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안목과

지혜를 찾는 방향은 유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회복하고 또 현대 수요에 맞게 재구성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대적 회복이란 유교의 평생교육 전통을 말하고, 현대적 재구성이란 현대 사회의 문제에 적용시켜 유교 사상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첫째, 21세기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사회>와 유교의 교육전통과의 관련성을 언급함으로써, 서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찾고자 한다. 둘째, 현대 사회의 주요 의제인 생태적 위기와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서원교육 프로그램의 큰 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저는 法古創新의 의지를 가지고 유교의 최고 개념 仁을 인문적 생태사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자의 자기실현 교육사상을 현대적 평생교육 주제로 재구성하자는 주장을 성글게나마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배경

유교의 현대적 부흥은 결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은 동시에 현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을 요구한다. 위대한 사상은 그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현대 세계가 성취한 물질적 부의 총량, 인구의 수, 개간된 토지의 규모, 생산물과 정보를 교류하는 능력 등에서 인류는 역사상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핵심은 이들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신의 정신과의 관계, 인간과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서로 다른 문화 집단 즉 민족 집단 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지구 생태계) 간의 관계에서 현대는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자연-우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문적 생태사상으로서 ‘인’>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생활조건에 대응하는 개인의 자세이다. 최근 인류의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십대 후반까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50대 이후 직접적 생산현장에서 물러나서 길게는 30년 이상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길어진 수명, 특히 은퇴이후 ‘제2의 생애’란 조건 아래서, 새로운 삶의 전 구간을 의미 있게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혜가 절실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라는 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현대를 평생학습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유교 재활성화의 계기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

할 필요가 있다.

1) 학력사회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이행

『논어』는 이렇게 시작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먼곳에서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논어』 「學而」 1장)” 여기서 배움이란 인간 자신의 내면적 충족(說)에서 말미암는 것이며, 나아가 배움이 남에게 미침에 이르는 즐거움(樂)을 지적인 것이다. 그리고 배움은 원래 자신을 위한 것(爲己之學)이니 남이 알아주거나 그것으로 직위나 대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아, 천명(天命)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선비 군자가 평생 추구할 사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교육자 ‘만세사표(萬世師表)’ 공자의 이 말씀은 유교 재활성화의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일 뿐 아니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의 의의와 필요성에까지 한가지로 통하는 것이다.

(1)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인생 후반기의 배움, 학습사회

1972년 유네스코「교육개발국제위원회」는 「Faure Report」 보고서에서 「미래의 학습 Learn to be」을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신체적·지적·정서적·윤리적으로 통합된 완전한 인간(complete man)을 이루기(be) 위한 배움을 말한다. 즉 학습은 학력·지위·재산 등을 ‘가지기(have)’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사회’란 인생 전반기 노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학력이 중시되는 학력사회에서 성인기 이후에도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되는 평생학습 사회를 말한다. ‘학습사회’는 Hutchins, R. M이 1968년 간행한 저서 「학습사회론 The Learning Society」를 계기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 되었다. 이 책에서 ‘학습사회’란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 인간적이기 위한 목적에, 모든 제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가치가 전환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론」은 전 프랑스 재무장관 Delors, J.를 위원장으로 하여 1993년에 발족한 「21세기교육국제위원회」에서 이어받았다. 이 위원회는 1996년에 21세기의 교육이나 학습의 본연의 자세로서 「학습: 숨겨진 보물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학습이 보물’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내부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잠재적 능력이나 미래에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로서 학습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습하면 숨겨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보고서에는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학습의 4가지 본성을 들고 있다. 곧 ‘지식을 배움(learning to know)’, ‘일을 배움(learning to do)’, ‘함께 사는 것을 배움(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live with others)’,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움(learning to be)’ 등이다. 「21세기교육국제위원회」는 평생학습을 21세기의 문을 여는 열쇠로

정의한다. 사람들이 배우고자 할 때, 전 생애(lifelong)를 통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사회’의 구축을 제창한 것이다.¹⁾

(2) 평생교육법

우리나라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하며, ④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조에서 평생 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9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 직속 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관련 부서에 담당과가 설치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가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 시행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5년 이후 대학입학정원의 30%이상이 미 충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기능이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등 4대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부는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에 총34개 대학을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에 총34개 대학을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 학습관은 2013년 421개이며,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평생학습관은 102개이다. 그런데 평생교육 수요자가 다수 상주하는 서울지역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²⁾

1) 中村香・三輪建二 編著, 2012, 『生涯學習社會의 展開』, 일본 玉川大學出版部

2) 유의정・정수정, 201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 현대의 위기와 유교의 재활성화

(1) 왜 유교는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 전통사회, 특히 조선시대 유교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교는 국가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공식적 교육이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사상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세계적인 종교는 인류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쉽게 설파하고 있다. 종교들의 경전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종교들은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하되 현대적인 문제에 대답하는 재해석·재구성·재수용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새롭게 정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유교는 그렇지 못하였다. 현대 한국에서 유교의 침체는 유교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수용시키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유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주도 집단이 취약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제안을 미흡하나마 시도하고자 한다.

(2) 새로운 방향 설정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유교 혹은 유교 경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재수용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유교적 가르침을 재구성하는 방향은 자본주의적 경쟁사회에서 인간성 상실,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도시적 삶에서 인간-자연의 관계와 같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문제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원과 같은 전통 유교문화 유산이 교육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유교의 전반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원은 강력한 두 가지 기반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적 향토적 기반이다. 다른 하나는 신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을 체현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이다. 한국 서원의 두 가지 기반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전통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탁월한 사회적 자연적 기반구조(infrastructure)이다. 이러한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서원은 본래의 고유기능인 강회 전통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서원의 강회 주제는 단순히 전통적 유교 사상을 재현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교사상의 핵심 범주와 현대사회·현대인의 관심사 간에 공유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서, 과감하게 재해석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변화된 내용에 부응하여 강회의 형식도 새롭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³⁾

3) 조선시대 서원 강회에 관한 연구는 김대식(2001, “조선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회강과 강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1집), 최광만(2012,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호)를 참조하였다.

3. 현대 서원의 강회 주제

1) 현대 한국 서원의 강회 주제 설정방향

- (1) 유교 경전과 성현의 말씀에 근거하고,
- (2) 서원의 당호 등에 제시되고 있는 개념을 구체화하되,
- (3) 전통적 서원 강회주제에 구속되지 않고,
- (4)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한다.

2) '천인합일의 장소' 한국의 서원

유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적 가르침과 달리 시-공적으로 초월한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현재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초월과 불후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현 존재의 감성적 생명과 현 순간의 조건 속에서 우주와 합일하여 영원을 자각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이러한 경지를 공자는 “逝者與斯夫”, 맹자는 “上下與天地同流”로 표현하고, 『禮記』에서는 “大樂與天地同和”로 표현했다. 이러한 말들의 공통적 의미는 사람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만 최고 지극한 즐거움의 경지와 감수(感受)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바로 이 시점과 공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르침이 지배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지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심미로 나타났다. 이 경지는 결코 인간의 감성을 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으며, 자연을 항상 크게 긍정한다. 이 자연합일 경지가 가지는 가치를 주돈이(周惇頤)는 “성인은 자연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을 희망하며, 선비는 현인을 희망한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산수 풍광이 아름다운 장소에 입지한 한국 서원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지각적으로 체득 인식하는 현장이 된다.

3) 강회 주제의 특성화

강회의 주제는 일반 공통 주제와 특성화 주제로 2원화할 수 있다. 일반 공통 주제의 사례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인문적 생태사상으로서 천인합일의 인>,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 등을 들 수 있다. 특성화 주제는 공통 주제의 의미를 각 서원의 교학전통·제향인물의 정신세계, 그리고 각 서원의 당호 및 경관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화·특성화한 주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학습대상의 지적 사회적,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도 주제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인문적 생태사상, 천인합일의 '인'

1) 유교의 '인'과 생태사상

유가(儒家)의 보편성과 영원한 가치는 '인(仁)'이다. 인은 본래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모든 인간에 내재한 도덕적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인은 유교적 가치 체계의 통합적 의미를 가진 가장 높은 등급의 덕목으로 기독교의 신(神), 도교의 도(道)에 비교할 수 있다. 공자 당시의 원시 유학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개인의 도덕성을 가리켰다. 송대 이후의 신유학에서는 인간과 우주를 관련시키는 형이상학적 정당화에 사용되었다. 오늘날 유교의 현대화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인'을 송대 신유학자들이 말한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모든 사물들은 나의 동료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 '천지만물은 하나(仁者天地萬物爲一體 幕非己也)', '천지의 마음(仁便是天地之心)'이라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천인합일의 인'은 현대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대두한 생태사상에 인문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세계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첸무(錢穆), 탕전이(唐君毅) 평유란(馮友蘭)은 공통적으로 유학 전통이 전 인류에게 미친 가장 의미 있는 공헌을 천인합일 사상이라고 단언하였다.⁴⁾ 천인합일 사상을 동중서(董仲舒)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이택후(李澤厚)는 '천인동구(天人同構)' 그리고 두웨이밍(杜維明)은 '동형동성(同形同性)'으로 표현하였다. 위기에 처한 현대 세계에 대하여, 천인합일 사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유학의 중대한 공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하늘과 인간의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려는 현대사회의 일방적 개발주의 발전관에 대한 반성과 인문주의적 보완 사상이다. 둘째는 자연과 인간의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문적 생태주의로의 현대 유학의 전환을 촉구한다.

유학의 생태론은 서구 기원의 과학적 생태주의에 대비하여 인문적 생태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생태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 즉 장(場)에서의 에너지 순환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서구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생물학적 사상은 맬서스와 다윈 시대에 '암울한 과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구문명은 극히 최근 현대에 와서 핵무기의 위협과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에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의 원리에 주목하였다.⁵⁾ 생태윤리학(生態倫理學)이란 모습이 1970년대 이후의 '생태학의 시대(age of ecology)'에 대두한 것이다.⁶⁾

4) 두웨이밍 지음 / 김태성 옮김,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336쪽

5) "축적된 정보를 근거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사적 개인적 투쟁들에서 상호의존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생물이나 생물종도 다른 생물과 종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기회를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골라내려 시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도널드 워스터/강현 · 문순홍 옮김, 2002, 『생태학 그 닫힘과 열림의 역사』, 아카넷, 530쪽.

6) 지구의 날(Earth Day)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시작된 민간주도의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자는 기념행사로 수백만명이 참석하였다. 이 기념식에서 생태학의 시대라는 구절이 등장하였으며,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뿐인 지구'라는 제목 하에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가 열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매년 4월 22일 민간환경단체 주관으로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공자의 ‘인’은 인간 사랑에서 출발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도록 하라.(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하고 말했다. ‘인’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종의 평등한 사상을 말한다.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맹자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仁 人心也 - 『맹자』 「고자상」)” 라고 언급하고, 차별적 사랑의 관계를 친친(親親) 인민(仁民), 애물(愛物)로 표현하여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차원에서 ‘인’을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시켰다.⁷⁾

북송의 신유학자 정호(程顥)는 고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족불인(手足不仁)’이란 표현을 ‘인’의 비유로 삼았다. 사지(四肢) 가운데 어느 한부분이 마비되면 마비된 부분이 신체의 일부분이었다고 느낄 수도 없어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불인(不仁)하다’고 말하였다. ‘인’은 잘 통하는 상태와 생기 활발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의 본체론적 의미는 끊임없이 생성 유행하며, 막힘없이 느끼고 통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의 윤리적 의미는 마땅히 만물과 사람 모두를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경지’와 ‘자기 아닌 것이 없는 경지’를 느끼게 된다.⁸⁾ ‘인’의 개념이 정자의 ‘천지만물과 일체의 인’(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 『二程全書』, 권1), 주자의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는 인”(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朱子, 『朱子語類』 下 권105, ‘仁說圖’), “인은 본래 살려는 뜻, 측은지심”(仁本生意, 乃惻隱之心也) - 『朱子語類』 下 권 68), “사랑의 리(理)이며 마음의 덕(德)”(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 『논어집주』 「學而」)로 전개 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인’ 개념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우주만물에 대한 관계론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1993년 9월, <세계종교기구>는 ‘글로벌 윤리를 향한 세계종교기구 선언’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내용을 인류가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보편적인 윤리로 삼기에 이르렀다.⁹⁾

유교가 다른 종교적 가르침과 다른 점은 유교의 자기 수양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하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몸-가정-공동체 그리고 천지만물에 뿌리를 둔 유교의 세계관은 이 뿌리를 떠나거나 초월함으로써 신령스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명(天命)이 우리 본성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의 덕이 우리를 통해 행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재

7)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物, 謂禽獸草木. 愛, 謂取之有時, 用之有節. 程子曰: 仁, 推己及人, 如老吾老以及人之老, 於民則可, 於物則不可. 統而言之則皆仁, 分而言之則有序. 楊氏曰: 其分不同, 故所施不能無差等, 所謂理一而分殊者也. 尹氏曰: 「何以有是差等? 一本故也, 無僞也」 - 『맹자』 「진심장구」 상 45

8) 陳來 지음·안재호 옮김, 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성리총서 5, 130~131.

9) 喬清學, 2010, “‘인(仁)’의 측면에서 본 유교문화와 가치의 불변성”, 한국국학진흥원 심포지엄 발표문, 1993년 9월 4일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의 대표들은 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윤리를 향한 선언(Declaration of Human Responsibilities)’을 채택했다.

적 초월성*, 인간-우주 동형동성적 관점이다.¹⁰⁾ 인문적 생태론으로서 유교는 자기수양을 이룬 개인, 화목한 가정, 정의로운 국가, 광대한 우주를 관통하는 유기적 연계의 집안(天下一家) 의식이다. 유가(儒家)는 우주 속에서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음(萬物各得其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유학자들의 생태주의 지혜, ‘인’

◦ 중국 자연철학의 효시이자 동아시아 철학의 최고 권위인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에는, “끊임없는 생성과정을 역이라 하는데(生生之謂易), 천지(자연)의 큰 공덕을 일컬어 생이라 부른다.(天地之大德曰生)” 하였다. 자연의 섭리에서 우주적 생명정신을 본 것이다. 또 “다시 돌아오는 봄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復, 其見天地之心乎 - 『象傳』 復卦)”이라 하여, 계절의 순환 속에서 우주도 사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생명계임을 직관한다. 우주 자연과 인간은 감성적으로 서로 통하는 존재로 지각한다. 우주 자연의 특성이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는 생명체의 생성 소멸로 대표되고 자연 자체를 생명체로 인식한 것이다.

“자연계의 운행은 건전하고,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끊임없이 노력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 『주역』 乾卦 象辭)”하여, 자연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자연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군자의 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관과 인생관의 통일을 추구하는 ‘천인합일’에 대하여 『주역』은 다시 “무릇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는 사람이다.(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 『乾卦』 文言傳)” 하였다. 사람은 반드시 천도에 순응하고 음양의 이치에 따르고, 자연(天) 역시 인간의 품격과 성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¹¹⁾

◦ 증점의 즐거움

“증점이 말하기를 ‘저는 늦은 봄날 봄옷이 완성되면 관을 쓴 어른 5-6인과 동자 6-7인과 함께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서 바람을 쏘이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탄식을 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증점과 함께 하고 싶구나.’ 하였다.(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 『논어』 「先進」 25)”

주자는 이를 풀이하기를 “그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함께 위아래로 흘러 각기 그 묘한 곳을 얻으니 은연 중 말 밖으로 스스로 드러났다.(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 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10) 뚜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338~339쪽

11) 『주역』 「서괘」에서는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有君臣然後 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初無舍己爲人之意。而其胸次悠然，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隱然自見於言外。視三子之規規於事爲之末者，其氣象不侔矣，故夫子歎息而深許之。 - 『논어집주』) ” 하였다. 이 ‘증점의 즐거움(曾點之樂)’을 유학자들은 ‘공자와 안자가 즐거워 한 바(孔顏樂處)’로 보고, 인생 최고의 경지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不改其樂)’ 삶을 통하여 천인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고자 했다.

○ 『논어(論語)』를 보면, 증자(曾子)는 ‘공자의 도(夫子之道)’는 ‘충서(忠恕)’일 뿐이라고 하였다. 충(忠)은 ‘자기를 다함(盡己)’, 서(恕)는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림(推己)’을 말한다. 송대(宋代)의 정자(程子)는 “자기 자신으로써 물건에 미침은 ‘인’이오,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물건에 미침은 ‘서’이다.(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진기(盡己)’는 자신의 사랑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추기(推己)’는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가(儒家)의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 더 나아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곧 유가(儒家) 철학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은 나누어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연장되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 『대학』 첫 장의 「팔조목(八條目)」은 세계가 자기수양을 이룬 개인, 화목한 가정, 잘 다스려지는 국가 간의 유기적 연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밝힌 것이다.

“예로부터 천하에 밝은 덕을 더욱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앎을 지극하게 하고, 앎을 지극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데 있다.”

○ 이처럼 수신제가에서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생태론적 관계는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들어 있다. 이러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정신이 『중용』의 우주관에도 보인다.

“만물은 함께 길러져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도는 함께 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작은 덕은 시냇물 같이 흐르고 큰 덕은 조화를 돈독하게 하니, 이것이 천지의 위대한 까닭이다.(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 小德川流 大德敦化 此天地之所以偉大也 - 『중용』 30장)” 이에 대하여 주자가 주석하기를 “‘큰 덕’은 바로 조화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작은 덕은 조화를 돈독히 한테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충(忠)과 서(恕)는 같으니 충은 바로 그 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서는 그 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중(中)과 화(和)와도 같으니, 중은 바로 그 덕이 조화를 돈독히 함이고, 화는 바로 작은 덕이 냇물과 같이 흐름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하였다.

○ 성인은 자아실현과정으로서 천지의 변화 양육에 참여한다는 『중용』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은 송대 신유학에 이르러 새로운 우주관으로 발전한다.

“오직 하늘아래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그 자신이 가진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면 타인의 본성을 실현시키게 되고 타인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면 만물의 본성 또한 완전히 실현시켜 준다. 모든 사물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천지의 변화와 양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천지의 변화와 양육을 도우므로, 사람이 천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 『중용』 22장)”

○ 『맹자』의 우산지목(牛山之木) 비유는 자연이 황폐해가는 사례를 들어, 인성(人性)도 보존하려는 의지 없이 놓아버린다면, 상실되어 동물처럼 되어 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연과 인성의 보존을 연계시키면서 주체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대국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가 매일 나무를 베니, 어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낮과 밤에 자라는 바와 비·이슬로 적셔주는 바에 썩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지만, 소와 양이 또 방목된다. 이 때문에 저와 같이 헐벗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 그 헐벗은 모습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있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었겠는가. 인간에게 간직된 것도 어찌 어질고 정의로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사람이 자신의 훌륭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역시 나무들을 도끼와 자귀로 베어내는 것 같다. 날마다 도끼질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孟子曰: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 『맹자』 「告子章句」 上 8장)”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서도 자연의 황폐를 인간의 각박함에 비유하는 사고가 있었다.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 토양 침식을 평가하면서, 한때 비옥했던 지역이 토양 유실이 이루어진 결과 이제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서 마치 병든 자의 해골처럼 변해버렸다고 탄식하였다.

○ 동중서(董仲舒), 인간은 천지와 함께 셋이 된다.

■ “사람은 만물을 초월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사람은 아래로 만물을 기르며 위로 천지와 함께 셋이 된다.(人之超然萬物之上, 而最天下貴也. 人, 下長萬物 上參天地) - 『춘추번로(春秋繁露)』 「天地陰陽」)

■ “천지인은 만물의 근본이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땅은 기르고 인간은 완성시킨다. 이 세 가지

는 서로 수족이 되어 일체를 이루니 이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天地人萬物之本也. 天生之, 地養之, 人成之. 『춘추변로』, 「입원신(立元神)」 19)

○ 정호의 仁,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다.

■ “仁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 『二程全書』, 권1)”

■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상을 보아라. 만물의 생의가 가장 불만하니, 元(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것을 인이라 한다.(觀天地生物氣象, 萬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所謂仁也 - 『近思錄』, 道體類)”

■ 사심 없이 공정한 마음(廓然而大公);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程顥, 『定性書』)”

■ 천인합일의 경지; “孔顏樂處”, “吾與點也”

정호는 청년 시절에 주돈이에게 수업을 받았다. 주돈이는 안연과 공자의 즐거움을 찾아보고, 어떤 일을 즐거워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令尋顏子仲尼樂處 所樂何事) 나중에 정호가 다시 주돈이의 배움을 얻고 돌아가면서 “음풍농월(吟風弄月)하며 돌아와, 나는 증점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自再見周茂叔後 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 『二程集』, 「遺書」)” 하였다.

■ ‘방화수류과전천(傍花隨柳過前川)’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고 한낮에 가깝구나. 꽃에 기대고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아 시내를 건너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모르고, 한참 공부해야 할 젊은 시절을 허비한다 말하네.(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旁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閒學少年 - 『二程集』, 「偶成」)”

○ 장재(張載): 그 마음을 크게 하라(大其心). 우주적 마음의 천인합일 체험

■ 장재는 “자기 마음을 확대하면 천하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물 중에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건문의 협소한 틀에 얽매지만 성인은 본성을 다하므로 건문으로 그 마음을 가두어 놓지 않는다.(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 物有未體 卽心爲有外 世人人之心 止於見聞之狹 成人盡性 不以見聞梏其心 - 『張載集』, 『正蒙』, 「大心」)” 이는 천지만물을 체득하는 의미를 감관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범위(건문)를 넘어서 ‘마음을 사물에다 두는 것’으로 보았다. 대심으로 얻는 지식은 건문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넘어 덕성으로 아는 것, 참됨과 밝음으로 아는 것이다. ‘대심의 앞’이란 ‘천하의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우주적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천인합일의 체험이다.

■ 장재의 「서명(西銘)」: 백성은 내 동포요 만물은 모두 내 친구이다.

천지인의 합일을 설명하는 핵심적 신유학 고전이 張載의 「서명(西銘)」이다. 장재는 사회적 약자야말로 우리 형제인데 이들을 돕는 것이 효자라고 하고 있다. 효를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효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바탕을 「서명」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늘은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의 이 조그만 몸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내 몸을 이루고 하늘과 땅을 이끄는 것은 내 본성이 되었다. 백성은 내 동포요 만물은 모두 내 친구이다. 천자는 집안의 맏이에 해당하고 대신들은 그 맏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내 집 어른을 받드는 것이고, 힘없고 외로운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내 자식을 거두는 일과 같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요, 현인은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천하에 고단하고 병든 사람,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호소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에 하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된 사람의 공경이요, 이 길을 싫어하지 않고 즐겨 따르는 자가 진정한 효자이다. 이 덕성(仁)을 어기는 것을 패덕(悖德)이라 하고, 인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이른다. 악을 이루는 것은 흉악한 족속이요 그 형체를 실현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이다. 조화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받고 신묘함을 궁구하면 하늘의 뜻을 잘 어어 받든다. 방구석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김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부귀와 복록은 나의 삶은 윤택하게 하고, 빈천과 근심은 그대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한다.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순종하며 섬기고, 죽으면 나는 편안할 것이다.(橫渠先生作訂頑曰,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大君子, 吾父母宗子, 其大臣, 宗子之家相也. 尊高年, 所以長其長, 慈孤弱, 所以幼其幼. 聖其合德, 賢其秀也. 凡天下疲癯殘疾, 惇獨鰥寡, 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者也. 于時保之, 子之翼也. 樂且不憂, 純乎孝者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其踐形, 惟肖者也. 知化則善述其事, 窮神則善繼其志, 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 惡旨酒, 崇伯子之顧養. 育英才, 穎封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 舜其功也.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 參乎. 勇於從而順令者, 伯奇也. 富貴福澤, 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女於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 장재의 「서명」은 개인의 입장에서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개인과 사회생활에 적용해 갈 것인가를 말한 것이다.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주의 모든 것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상에서 왔다. 노인에 대한 공경,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 등 개인의 모든 도덕적 활동도 우주 만물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개체로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직접적 의무이다. 이것이 천하의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만물일체의 경지’이다. 이것을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말한다. 이 만물일체의 경지에서 각자의 도덕적 자각은 크게 향상되고 도덕적 행위는 우주적 위상을 얻어 더욱 높은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생명이란 우주에 속한 것으로 살아 있을 때는 하늘과 땅에 부응하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란 사람을 영원히 안식하게 한다.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뜻을 크게 세워, “하늘과 땅을 위해 마음을 두고, 백성을 위해 명을 세우며, 옛 성인을 위해 학문을 계승하고, 후대 만세를 위해 태평의 시대를 연다”라는 대업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

- 천지인(天地人)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삼재(三才) 관념은 그동안 과학적 세계관에서 부정적으로 비취졌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의 생태학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적 변화에 대한 책임과 동참을 의미하는 온고지신의 메시지가 된다.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에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성인은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서명」을 싣고 있다. 세상사람 모두를 동포로 보자는 퇴계와 장재의 사상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 글로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인’의 생태주의적 적용이다.

○ 주자의 仁,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朱子, 『朱子語類』 下 권105, ‘仁說圖’)
- “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이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도다.
잇달아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생의가 드러난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뉘라서 이 마음 함께 깨달을꼬.
(危亭俯清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 - 『주자대전』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 왕양명(王陽明), 대인이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 “대인이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된 사람이다. 그는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기고 국가를 한 사람으로 여긴다. 대상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대인이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의 어진 본성이 본래 같아서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大人者以天地萬物爲一體者也. 其視天下猶一家 中國猶一人焉. 若夫間形骸而分爾我者小人矣. 大人之能以天地萬物爲一體也. 非意之也. 其心之仁本若是. 其與天地萬物而爲一也. - 王守仁, 『傳習錄』 「大學問」)

○ 천지만물과 감응 감통

그 마음을 크게 하여 천지만물과 하나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인이다. 이는 마음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수성이 있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까운 꽃에서부터, 사계절의 산, 그리고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와 감응(感應)하는 관계를 가지고 일체화되어 감통(感通)할 수 있다.

- “봄 산은 화답하는 듯하고 여름 산은 화난 듯하며, 가을 산은 화장한 듯하고 겨울 산은 잠자는 듯하니, 사 계절 산의 뜻을 산은 말할 수 없으나 사람은 말할 수 있다.(春山如答, 夏山如怒, 秋山如妝, 冬山如睡, 四山之意 山不能言, 人能言之 - 이택후, 1990, 『화하미학』, 103-104쪽)”
- 정명도는 “천지간에 감응이 있을 뿐이다.(天地之間 只有一箇感應而已...天下只有箇感應)” 하였다. 주희는 “모든 일과 모든 사물에는 감응이 있다(事事物物皆感應)” 하고 “천지간에 감응의 리가 아닌 것이 없다.(在天地間非無感應之理)” 하였다. 또 『論語』의 ‘德不孤 必有隣’ 을 설명하면서,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를 찾는다.(同聲相應 同氣相求 - 『朱子語類』)”
- “사물에서 감응하는 것은 마음이다.(感於物者 心也 - 『朱子大全』 상 권32 答張敬夫)” 하였다. 심과 사물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구별된다. 『大學』에서 사물에 응해도 능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요함(靜)이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마음이 외물에 동요되지 않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여 심과 사물을 분명히 구별하고, 사심(私心)이 끼어들면 체득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감응은 사물과 사물의 기계적 감응에 한정되지 않고, 사심 없는 정성스러운 마음에 感하여 應이 발생하는 예를 제사나 기우제를 들어 설명한다.(『朱子語類』)

○ 퇴계의 천인합일, 자연경치와 사람의 뜻이 하나로 됨

- “쭉지 한 장을 아침에 보냈는데, 조금 후 두통의 서신을 받아 도의를 강마하는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가상하고 가상한 일입니다. 보여준 청야음(淸夜吟)은 그 의사가 대개 옳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는 아마 아무런 욕심이 없고 스스로 얻은 사람이 깨끗하고도 맑으며 높고 먼 마음의 상태에서 광풍제월을 만날 때 저절로 자연 경치와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을 이루어 흥취가 빼어날 것입니다.(一紙朝遣。俄獲兩來。知有講劘道義之樂。可尚可尚。示喻淸夜吟。意思大槩得之。但愚恐只是無欲自得之人。淸明高遠之懷。閒遇著光風霽月之時。自然景與意會。天人合一。興趣超妙。潔淨精微。從容灑落底氣象。言所難狀。樂亦無涯。康節云云。只此意耳。以是揆之。前說近是。而後說則似涉於牽強附會也。如何如何。心經所論。具悉 - 『퇴계문집』 36권 答李宏仲)”
- 퇴계가 말한 소강절(邵康節) 시 淸夜吟의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은 지금 돈암서원 문루 산양루 기둥에 주련으로 걸려 있다.

■ 퇴계의 樂山樂水

“樂山樂水는 성인의 말이지만, 산은 어질고 물을 지혜롭다는 말도 아니며 또한 사람과 산수는 본래 성이 같다는 것을 이르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 자는 산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즐긴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물과 비슷하기에 물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의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즐거움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려고 하면 다른데서 구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그 깊은 곳의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에는 어짐과 지혜의 씨앗(實)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짐과 지혜의 씨앗을 확충하지 않고서, 오로지 높이 솟은 나무가 무성한 산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고, 거칠고 도도하게 흐르는 냇물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틀린 것이며,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다... - 『退溪先生文集』 권37 書, ‘答權章仲好文’)

◦ 조선 개국의 원훈 정도전의 경세사상에도 유교의 자연친화적 ‘인’이 바탕을 이룬다.

“대숲을 보호하려 길을 굽게 만들었고, 산을 아껴 누각을 작게 세웠네.” “護竹開迂徑 憐山起小樓 - 『(三峯集) ‘山中)’”

3) 서원 경관에서 찾는 천인합일의 사례

◦ 남계서원 풍영루

남계서원 풍영루(風詠樓)는 서원의 전망경관에서 천인합일하는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 「風詠樓記」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뜬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유연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 頭流山(지리산)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일두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풍영루라 이름하였다”고 밝힌다. 또 19세기 대표적 유학자의 한 사람인 奇正鎭의 풍영루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증점에 직접 비유하였다. “일두 선생의 심오한 학문은 비록 후생이 헤아릴 수 없으나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상상해보건대...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겠다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라는 것으로

만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두류산 백암산과 남계와 위수는 모두 조망할만한 아름다운 산수로 기록할만하다.” 하였다.

증점의 기상이란 공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올라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께서 탄식하며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했다는 기상을 말한다. 풍영루에 올라 서원 앞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공자의 탄식을 자아낸 증점 답변을 떠올린다. 정여창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에 “바람결에 냇버들 가볍게 나부끼니 사월 화개 땅에 보리가 이미 익었구나. 두류산 봉우리를 모두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다시 큰 강으로 내려가네(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하였다. 이러한 정여창의 기상이 곧 증점의 기상과 같다는 것이다.

문루 풍영루에서 보이는 탁 트인 들과 아지랑이 낀 시내 그리고 구름 속에 아득한 산들이 주는 감회는 증점의 기상과 통한다. 주자는 증점의 기상을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로 평가한다. 이 경지는 마음이 유연한 군자가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여창의 기상과 경지도 이것이며, 또 정여창을 흠모하는 선비들의 기상이기도 할 것이다. 문루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기상을 함께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소수서원 경렴정

퇴계는 경렴정(景濂亭) 시에서, 경렴정에서 지각하는 천인합일감을 ‘초유일반의(草有一般意)’ 곧 천지만물의 본성인 생의(生意)의 자각으로 표현한다. 퇴계는 산에서 자라는 풀들도 생의를 가진 것으로 읊고,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그 생의를 머금은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죽계와 경(敬)자 바위를 바라보는 경렴정은 함양(涵養)의 장소에서 나아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仁)을 지각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경렴정 (景濂亭)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草有一般意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溪含不盡聲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遊人如未信
씻은 듯이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蕭洒一虛亭

‘풀도 나와 마찬가지로 생의를 가진다(草有一般意)’는 말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가 창 앞의 풀을 뽑지 않아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한데서 유래했다. ‘경렴정(景濂亭)’이란 이름은 염계 주돈이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퇴계는 사람들이 경렴정 위에서 송림과 시냇물을 보며, 염계(濂溪)처럼 생의(生意)를 함축한 자연 경치를 통해서

‘인’을 깨닫기 바라는 것이다. 퇴계는 경험정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 죽계와 취한대(翠寒臺)를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하는(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인’을 체득하게 하는 안대 경관으로 본 것이다. 경험정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을 지각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얻게 된 것이다.

○ 옥산서원 무변루

무변루의 ‘無邊’은 북송시대의 시인 黃庭堅이 염계 주돈이의 인품을 “風月無邊 庭草交翠”로 찬양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렴계의 인품을 ‘풍월무변’으로 부른 것은 염계가 光風霽月 같이 넓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다. 또 ‘庭草交翠’라 한 것은 염계가 ‘나와 뜻과 같다(與自家意思一般)’ 하여 정원의 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한 生意尊重 사상을 가리킨다. ‘意思一般’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염계는 『太極圖說』을 저술하여 新儒學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며 宋學·道學의 시조로 불려진다. 이언적은 염계의 『태극도설』 ‘無極而太極’에 대하여, “道の 어디까지나 物的 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다. 회재의 제자인 노수신은 무변루의 의미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虛)”라고 풀이하었다. 이는 염계의 ‘無極’을 말하면서, 염계의 인품을 함께 말한 것이다. 결국 노수신은 무변루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생기 충만한 자연과 합일하는 마음이 곧 천인합일의 ‘인의’ 지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수신의 무변루 해석은 염계의 光風霽月의 경지를 옥산서원이 모신 이언적에 비유하는 은유를 함축한 것이다.

○ 필암서원 확연루

확연루의 ‘확연’은 ‘廓然大公’에서 왔다. 확연루 전망경관에 私心이 없다면, “드넓게 공평할 수 있고,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감흥이 있다. ‘확연’은 북송시대 유학자 정호의 “대체로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쳐서 사심이 없는 것이며,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평하여 만사 사물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따를 뿐이다.(夫天地之常 以其心 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 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에서 취한 것이다. 확연루에 걸려 있는 하서의 후손 金時榮의 「廓然樓記」에는 확연루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아, 내 삼가 尤庵의 隱微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정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평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연역하기를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인이’ 몸체

(體)가 되는 것이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은 義가 쓰임(用)이 되는 것이다. 인이 확립되고 의가 행해지면 본성이 고요해져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한결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의 한 치 마음이 담박하여 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잔꾀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거울처럼 텅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에 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확 트이게 되어 밖에서 비추는 것들이 그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4.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

1) 나에서 비롯되는 심신지교(心身之教) 유교

○ ‘하늘이 명하는 것을 본성(性)이라 말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道)이라 말하며, 길을 닦는 것을 가르침(教)이라 한다.’ 유가 최고의 철학책 『중용』 제 1장 서두이다. 하늘의 길과 사람의 일은 잠시도 나뉘질 수 없으며, 길은 인간 본성의 전개이므로 가르침(教育)은 길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그 가르침은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부여한 것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

○ 유교는 본성으로서 인간성(仁)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심신의 계발을 위한 가르침(心身之教)이다. 일찍이 맹자는 자기실현을 위한 노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나 자신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인을 향하는 진정한 노력을 돌이켜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크고 중요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도 자신의 마음처럼 힘써 행하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 『맹자』 盡心上 4)”

○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인격적 지식을 심화시키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배움의 과정은 죽은 뒤에나 끝나는 평생학습이다.

■ “배움은 뜻을 세움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배움은 기질을 변화시키고 구습을 극복시켜 사람을 변화시킨다.(學者爲奇所勝 習所奪 只可責志 - 『근사록』 「위학편」 38, 『程氏遺書』 제16)”

“배우지 않으면 후퇴할 뿐 아니라 늙고 병든다.(不學便老而衰 - 「위학편」 36, 『정씨유서』 제 16)”

■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모름지기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어찌 멀지 않으랴.(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논어』 「泰伯」)”

- 주돈이(周惇頤)는 “성인은 자연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을 희망하며, 선비는 현인을 희망한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 『通書』 「志學章」 제10)”하고, 성인은 배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요점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가 요점이니 하나는 바로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고 텅 비고 움직임이 바르게 된다. 고요하여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한다. 움직임이 바르면 공정하고 공정하면 넓어진다. 밝고 통하고 공정하고 넓어지면 거의 성인에 가깝다. (聖可學乎 曰：可 曰：有要乎 曰 有 請聞焉 曰 一為要 一者無欲也，無欲 則 靜虛 動直，靜虛則明，明則通；動直則公，公則溥。明通公溥，庶幾乎！ - 『通書』)

○ 유교는 공부를 계속하여 자기 수양에 매진하는 한, 인간은 노쇠하지 않고 성장 성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면 늙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비는 그 뜻을 크고 굳건하게 하여 평생토록 각고의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선비의 임무는 넓고 깊게 배우고 실천하여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이다.

2) 공자의 자기실현 평생교육

사람은 생애의 각 시기에 따라 상이한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있고 성숙도가 다르다. 이러한 생애 단계의 상이한 여건에 맞추어 자기실현으로서 배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 『논어』에는 공자가 인생의 단계를 청년·장년·노년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청년은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욕을 경계하고, 장년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은 혈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孔子曰：君子有三戒：少之時，血氣未定，戒之在色；及其壯也，血氣方剛，戒之在鬪；及其老也，血氣既衰，戒之在得) 하였다.

젊은 시기의 지나친 성욕과 같은 혈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해쳐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하는 ‘조장(助長)’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장년기의 지나친 열정은 과시적인 경쟁에 몰두하게 되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남을 위한 인간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 외적 지향성을 위주로 하면, 내적 방향성을 상실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子曰：「不仁者不可以久處約，不可以長處樂。仁者安仁，知者利仁 - 『논어』, 「里仁」 2장)“

이러한 열정은 외적인 간섭이나 도전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늙었을 때의 탐욕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집착이다. “더 많이 얻기 위해 근심하고 잃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소인배의 모습은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혈기는 젊은 시절에는 동요하고 장성해서는 강하고 늙어서는 쇠한다. 혈기를 통제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지기(志氣)이다. 지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하지 않는다.

지기를 기르는 학습을 통하여 군자는 나이가 높을수록 오히려 덕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긴 생애에서의 개인의 배움과 실천의 과정에 대한 공자의 언명은 나이에 따라 개인이 성숙해가는 다양한 단계를 의미 깊게 묘사한 불후의 명언이다.

○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于學), 삼십에는 예절에 맞게 자아를 확립했다(而立). 사십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고(不惑), 오십에는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知天命). 그리고 육십에는 자연스럽게 각종 비판을 편안하게 수용했고(耳順), 칠십에는 내 마음에 쫓아서 행동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 (『논어』 「爲政」 4장)

나이에 따른 공자의 성숙단계 구분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경계해야 할 가르침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각적 인간이 나타내는 성숙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의지를 세움 다시 말해 입지(立志)를 뜻한다.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 도덕적 능력을 세우려는 욕구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을 조율하는 안내자로 시(詩) 공부를 권장한다(興於詩). 15세에 학문에 뜻을 둔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 성장시키기 위한 새롭고 지적이면서 시적(詩的) 상태의 성장과정을 의미한다면, 30세에 예절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적합하게 인격을 세우는 것은 성숙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예절이란 인간관계망 속에서 실현되므로 예절로 자기를 세운다는 것(立於禮)은 다양한 유대 관계 속에 맡게 되는 책임감을 가리킨다(自任).

○ ‘40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년이 된 공자의 상태를 상징한다. 미혹되지 않음은 마음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의지가 확고하게 일에 머무르기 때문에 공자에게 부귀와 명예는 뜬 구름과 같아 더 이상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없다.(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 『논어』 「술이」 15장) 그것은 사회적 곤란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내면의 힘이며 평정이 주는 침착함이다. “나는 조용히 듣고 기억하였다. 나는 결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매우 자연스럽다.(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漁我哉 - 『논어』 「술이」 22장)”.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란 사회적 관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전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요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 『논어』 「子罕」 28장)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의미한다. “오늘날 완성된 사람은 어찌 굳이 그러할게 있겠느냐. 이익이 생기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평생토록 지킬 말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曰: 今之成人者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 『논어』 「憲問」 13장)” 사회적 관계에서 자득(自得)하는 인생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것이 배움에서 얻게 되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를 의미한다면, 노년기를 앞두고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늘의 명령을 아는 것’(知天命)은 위대한 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스스로의 마음 다짐이다. 노경에 인생의 고초를 겪으며 느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며, 그 시기를 정면으로 대처하는 정교한 마음의 틀이 되기도 한다. 공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며 하늘만이 나를 알고 있다.(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 『논어』 「현문」 37장)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늙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하다. 결코 ‘인의’ 길을 포기 하지 않는 것이다.(子曰 詩之好仁如此, 嚮道而行 中道而廢 忘 身之老也 不知 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孳孳 斃而後已 - 『예기』 32편 「表記」) 하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실패와 고초를 격을수록 더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묵묵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 - 『陽貨』 19장;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 『述而』 22장)

○ 60세에 편안하게 듣게 되었다는 말(耳順)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 듣는 능력은 초연한 정신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열고 어기고 거스르는 바가 없다. 아는 것이 지극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공자는 고집 독단 억지 이기심이라는 마음의 4가지 결점에 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 『자한』 4장)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 『里仁』 8장)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긍정은 결코 세상에서 탈출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연대를 이루는 자기실현을 상징한다.

○ 70세에 ‘마음을 좇아서 행해도 법도를 아가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는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와의 조화를 뜻한다.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그 이전 모든 단계의 결실을 상징하는 듯하다. 맹자가 “큰 사람은 아린아이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 『離婁』 下 13장)” 하였듯이, 70세의 공자는 구애 받지 않는 자유의 즐거움과 훌륭하게 수양한 사람이 얻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자연스러움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음악으로 이룬다’(成於樂) 했을 때의 경지를 말하는 듯하다. 공자는 노나라의 악관에게 “음악이 처음에는 합하여 일치로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연주가 보다 자유스럽지만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화롭고 웅장하며 연결되어 완성된다.(子語魯大師樂. 曰: 樂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嘒如也, 繹如也, 以成. - 『八佾』 23장)” 하였다.

○ 공자의 일생을 현대인에게 비유하자면, 20·30대는 전체 인생에 대한 뜻을 세우는 청년기의 입지(立志)를 통해서 지기(志氣)를 축적하고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자임(自任)의 시기이다, 40·

50대는 배움을 통해서 지혜가 무르익은 장년기의 자득(自得)의 시기이다. 노년인 60·70대 이후는 욕심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는 경지를 배움으로써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화 속에 자연스러움을 완성하는 자취(自取) 혹은 자족(自足)의 경지를 의미한다. 생애를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세 시기로 구분한다면, 각 시기의 배움의 성격은 청년기의 입지(立志: 自任), 장년기의 자득(自得), 노년기의 자족(自足)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3) 입지(立志: 自任)

역사상 큰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신의 소명을 받았거나 천부적 재능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뛰어난 인간성의 실현자로서 온 힘을 다해 우리 모두의 짐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논어』에 자기 임무를 인(仁)으로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모름지기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仁)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또한 멀지 않으랴.(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태백」 7장)”

○『맹자』에 이윤(伊尹)이 탕왕(湯王)에게 나아간 것을 “스스로 천하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받는다(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故就湯而說之以伐夏救民 - 「만장(萬章)」 7장)” 하였다.

○ 정이(程頤)는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입지란 지극한 정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기꺼이 떠맡는 것을 말한다.(所謂立志者 至誠一心 以道自任)” 하였다. 자임(自任)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도덕적 책무를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 뜻을 세우는 입지를 의미한다.

○ 맹자, “먼저 마음을 크게 세우면 작은 욕망들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똑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그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이다. ...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큰 것을 얻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이는 하늘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니, 먼저 큰마음을 세우면 작은 욕망들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弗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 맹자 告子 상 15장)”

○『맹자』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커다란 임무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고통스

럽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며, 그가 추구하는 길을 장애물로 막는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그의 성질을 단련 시켜서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시켜 준다.(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 「告子」 하 15장)”.

○ 장재, “천지만물을 위해 마음을 세운다.”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삶의 길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연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歲開太平 - 『張載集』, 『近思錄拾遺』 4) 천지는 낳고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성인은 그 화육에 참여하여 만물이 각기 그 본성의 바름을 얻도록 도와주니 이것이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운다는 것이다. 의리를 세워 밝히고 삼강과 오상의 윤리를 도와 세우는 것, 이것이 백성을 위해 삶을 길을 세우는 것이다. 끊어진 학문을 잇는다는 것은 도통을 모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태평을 연다는 것은 제왕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에게서 법을 구해 그 은택이 만세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으로 뜻을 세우면 책임이 극히 커서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요 품은 생각이 지극히 공정해서 구차하게 눈앞의 실용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장재, “학자는 뜻이 작고 기질이 가벼우면 절대로 안 된다.”

“뜻이 작으면 쉽게 만족하고 쉽게 만족하면 나아갈 방도가 없게 된다. 기질이 가벼우면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여기고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이미 배웠다고 여긴다.(學者大不宜志小氣輕, 志小則易足, 易足則無由進. 氣輕則以未知爲已知, 未學爲已學 - 『근사록』 「爲學」 111)”

○ 김성일(金誠一), 걱정해야 할 것은 뜻을 세움에 참되지 못한 것이고, 재주가 부족한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뜻을 세움에 참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재주가 부족한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재주가 있다는 해서 소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재주가 없다는 것이 군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人患立志不誠, 何患才不足. 有才不免爲小人, 無才不防爲君子 - 『학봉전집』 「언행록」)”

서원의立志 사례

- 도산서원의 西齋의 당호는 홍의재이다. ‘홍의(弘毅)’는 마음이 넓고 뜻은 굳세야 한다는 뜻을 세움(立志)의 중요성을 말한다.
- 남계서원 외삼문은 준도문(遵道門)’이다. 공자는 “군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하여 세상을 숨어 살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뉘우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君子遵道而行, 半塗而廢, 吾弗能已矣. 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 『중용』 10장) 하였다. 남계서원 대문 준도문(遵道門)은 세상이 알아줄까 근심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중용에 의탁하여 도를 실천궁행하는 군자를 키우는 서원임을 천명한 당호이다.

- 돈암서원 山仰樓: 돈암서원이 제향하는 사계 김장생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 俯而觀水 觸物悟理 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若早尋初服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 - 『沙溪先生遺稿』 권五 「記養性堂記」) 과거 서원이 있던 자리에서 보면 멀리 남으로 대둔산과 북으로 계룡산을 바라보는 ‘仰而樂山’하는 경관이 뚜렷하다. ‘山仰’은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 - 『詩經』)”하는 ‘인’에 대한 공자의 불굴의 노력을 상기시킨다.

■ 도동서원 강학공간의 당호

강학공간의 당호는 강당 중정당(中正堂), 동 서의 재사는 거인재(居仁齋)와 거의재(居義齋), 대문은 마음을 주재자로 부르는 환주문(喚主門)이다. 이는 엄제 주돈이의 『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중(中)·정(正)·인(仁)·의(義)로서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 『太極圖說』)”에서 가져온 것이다.

배움의 뜻을 세운 선비는 주정(主靜)의 敬을 마음의 주재(主宰; 喚主門)로 세워, 居敬齋와 居義齋에서 仁義를 닦아서, 마침내 中과 正의 경지인 성인이 될 수 있다. 유교의 위대성은 ‘배움을 통해서 聖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시작은 입지(立志)에 있다는 것을 도동서원 강학공간 당호가 담고 있다.

4) 자득

- 군자는 자득하기를 원한다.

『맹자』에 군자가 깊이 나아가는 것을 도(방법)로써 하는 것은 자득하고자 함이다. 자득 곧 스스로 터득하면 거처함에 편안하고, 거처함이 편안하면 이용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함은 좌우에서 취하여 씬에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득하기를 원한다.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 則居之安; 居之安, 則資之深; 資之深, 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 『맹자』 「離婁」 하 14)

○ 군자는 자득하지 못할 바가 없다

『중용』에 “군자는 자신의 처지에 마땅하도록 처신할 뿐이다. 처지 밖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富貴)에 처하면 부귀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빈천(貧賤)에 처하면 빈천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이적(夷狄)에 처해서는 이적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환난(患難)에 처해서는 환난에 마땅하게 처신한다. 군자에게는 들어가 자득하지 못할 바가 없는 것이다.(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 - 「道論」)”

○ 스스로 아는 것이 자득이다.

정자(明道 程顥)가 말씀하셨다. “학문을 하는데 말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것이 곧 자득이다. 안배하고 포치함이 있는 것은 모두 자득함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을 담그고 생각을 쌓아서 그 사이에서 오랫동안 여유롭게 충분히 행한 다음에야 자득함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급박하게 구한다면, 이는 사사로움일 뿐이어서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程子曰: 學不言而自得者, 乃自得也. 有安排布置者, 皆非自得也. 然必潛心積慮, 優游鑒飫於其間, 然後可以有得. 若急追求之, 則是私己而已, 終不足以得之也. 『정씨유서』 11)”

○ 정호, 만물을 조용히 바라보니 모두 자득이로다.

가을날에 읊어보다(秋日偶成) - 『河南程氏文集』, 권3, 「明道先生語」 3, 銘詩	
한가히 살아오니 조용하지 않을 일이 없고,	閒來無事不從容,
잠에서 깨니 동창의 해가 이미 붉구나.	睡覺東窓日已紅.
만물을 조용히 바라보니 모두 자득함ियो,	萬物靜觀皆自得,
사계절의 좋은 흥취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四時佳興與人同.
도는 천지 형상 밖까지 통하고,	道通天地有形外,
생각은 풍운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思入風雲變態中.
부귀해도 지나치지 않고 빈천해도 즐거워하니,	富貴不淫貧賤樂,
남아가 이에 이른다면 호걸이라 하겠다.	男兒到此是豪雄.

○ 자연의 경지를 자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대의 유학자 진헌장(陳獻章: 1428~1500)은 “산림과 조정 저자거리는 때 한가지이고, 삶과 죽음, 항상과 변화도 마찬가지로이며, 부귀와 빈천 외적인 환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름 하여 ‘자득’이라 한다. ‘자득’이란 외부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이목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놀다.’는 경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배울지라도 무익하다. 이러한 경지는 막힘이 없고 어떠한 사물도 없기 때문에 ‘허’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를 지극히 텅 비게 함(치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마음에 번거롭고 막힌 것들을 텅 비워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헌장의 ‘자득’은 즐거움이나 쇠락(灑落)의 심령 경지를 뜻하며, ‘자연’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이 자연 공부가 바로 맹자가 말하는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勿忘勿助)’는 공부이다. - 『송명성리학』, 361쪽

서원의自得 사례

■ 도산서원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텅 비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됨으로써 얻어지는 경지의 즐거움에 대하여 퇴계는 『도산십이곡』에서 “봄바람에 꽃 온 산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달이 하늘에 가득하니,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물며 鳶飛魚躍 天光雲影이야 끝이 있으랴.” 하였다. 천연대와 천광운영대에서 낙동강 물을 바라보며 천지자연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 천연대의 천연(天淵)은 『詩經』의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온 말이다. 천연대에 서서 강물 위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 “위아래에서 활발히 流行하는 천지의 造化 곧 天理를 살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호는 『중용』에서 ‘솔개는 날고 물고기가 뛰는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잊지도 말며 조장하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도달한 자유롭고 활발한 정신 경지라고 풀이한다. 퇴계는 그가 평생 추구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慾)을 막는 공부의 효험을 천연대에 올라 확인하는 즐거움에 대하여, “천연대에서 자연의 활발한 운행을 보고 오묘한 하늘 뜻을 깨달았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고 술회했다.

3) 자족

○ 공자, 나를 아는 자는 아마도 하늘이로다.

“공자가 말했다.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자공이 말했다. ‘왜 아무도 선생님을 모릅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탓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학문을 이루어 위로 진리에 도달하니 나를 아는 자는 아마도 하늘이로다.’(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 『논어』 「현문」 37장) ”

○ 공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중용』에 “윗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윗사람을 당겨 잡

지 않는다. 자신을 바로잡고 남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이하게 머물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요행을 바란다. 공자는 활쏘기가 군자의 태도와 유사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정곡을 맞히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 때문이다.(在上位不陵下, 在下位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故君子居易以俟命, 小人行險以徼幸.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 『중용』 14장)

○ 자취(自取), 마음을 열고 세상을 음미함

“어린애들이 노래하기를 창랑에 물이 맑거든 나의 소중한 갓끈을 빨래할 것이요, 창랑의 물리 흐리거든 더러운 발을 씻겠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들아 저 노래를 들어보아라. 물이 밝으면 갓끈을 빨고 흐리면 발을 씻는 것이니 이는 물을 자취(自取)하는 것이다. 하였다.(有孺子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孔子曰: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 『맹자』 「이루」 상 8장)”

주자가 이를 주석하기를, “물이 맑고 흐림을 자취(自取)함을 말한 것이다. 성인은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통하여 지극한 이치가 아님이 없으니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다.(言水之清濁有以自取之也. 聖人聲入心通, 無非至理, 此類可見 - 『맹자집주』 「이루」 상 8장) 하였다.

○ 주희의 사조명(寫照銘)

주자는 노경에 자신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명(銘)을 쓰기를, “너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얼굴빛을 공경하게 하라. 밖은 단속하고, 마음속은 하나로 일관하라. 처음 뜻을 세운 바를 힘써 닦아 그 마지막을 잘 맺으라. 요점을 잡은다면 무궁함을 얻으리라.(端爾窮 肅爾容, 檢於外, 一其中, 力於始, 修其終 操有要, 保無窮)”

○ 죽음 終! 죽음이란 하나의 몸에 구현된 인격체로서 시작된 자신을 마지막까지 힘써 올바르게 보전하여 그 마지막을 성실하게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증자가 병환이 심해지자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헤쳐 나의 발을 보고 나의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하고 궁궁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하였는데, 이제 나는 그 몸을 훼손할까 하는 근심에서 면한 것을 알았노라. 제자들아!(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子足! 啓子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 『논어』 「태백」 3장)“
- 군자의 죽음을 종(終)이라고 하고, 사(死)라고 한다. 군자는 몸을 보전하고 죽는 것을 자신의 일을 마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程子曰: 君子曰終, 小人曰死. 君子保其身以沒, 爲終其事也 - 『논어집주』 「태백」 3장,)

○ 자족하는 즐거움

■ 신희(申欽, 1566~1628)의 「인간삼락(人間三樂)」

문을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閉門閱會心書,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	開門迎會心客,
문을 나서서 마음에 끌리는 곳을 찾아가는 것,	出門尋會心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此乃人間三樂.

■ 이상정(李象靖, 1711~1781) 「입춘(立春)」

바람과 눈 스산한 밤은 몹시도 긴데	風雪蕭蕭夜苦長
잠 깨인 찬 창가엔 새벽빛 흔들린다	寒窓睡罷動晨光
매화 향기 새어들어 봄소식 전해오니	梅香漏洩春消息
음기 가득한 대지에 한줄기 양기여라	大地窮陰一線陽
누런 닭 울음 울어 새 하늘을 알리니	黃雞喔喔報新天
유수 같은 세월 속에 내 나이 칠십이라	流水光陰七十年
세상만사 유유함은 전혀 관여치 않고	萬事悠悠渾不管
전전긍긍 일념 속에 온전히 돌아가리.	淵冰一念且歸全

서원의 自足 사례

■ 병산서원 만대루의 만대(晩對)

‘晩對’는 杜甫의 시 ‘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翠屏宜晩對 白谷會深遊)” 하는 ‘翠屏晩對’에서 처음 왔다. 나중에 주자는 무이정사(武夷精舍)의 경치를 그린 「무이잡영(武夷雜詠)」의 ‘晩對亭’ 시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리 만대봉이 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비추네(倚筇南山巔 卻立有晩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 하여 해질 녘에 취병을 바라보는 감회를 읊었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푸른 절벽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두보와 주자는 산의 생기를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낙동강은 동쪽에서 흘러 병산서원 앞을 지나가는데, 이미 서쪽으로 기운 해는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햇살에 반사되는 낙동강과 병산의 푸름은 비취빛으로 더욱 황홀하게 반짝인다. 이 때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전해지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주자, 「仁說」)”는 느낌이 된다. 산과 물이 생기가 내 마

음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안대 경관의 山色과 사람의 마음이 生意라는 하나의 의미로 서로 감통하는 것이다. 저녁때의 산색에서 느끼는 생기에서 생의를 지각하는 능력은 아마도 주자처럼 만년의 삶이 더 가까울지 모른다.

■ 주자의 병중한좌(病中閑坐)

주자는 40대부터 다리가 아파 걷기가 힘들어졌고, 60세 이전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60대 후반부터는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게 되었다고 편지에 쓰고 있다. 30대에 스스로 병웅이라 칭했으나, 만년에 이르러는 백가지 병이 번갈아 공격하는 고통 속에서 ‘病中閑坐’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한다.

“제 병은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심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력은 점점더 쇠약해지고 기력도 심하게 떨어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放心)을 수습할 수 있고 눈앞의 외계 사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좀더 빨리 장님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스러워 할 정도입니다.”

또 65, 6세 경에는 환간(黃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최근 눈병 때문에 글자를 전혀 읽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 도리를 점점더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¹²⁾ 자득을 넘어 자족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대정의 푸른 생기는 50대 후반 노경의 주자가 걷기조차 힘든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산위에 올라 침침한 눈으로 바라보며 생의를 체득 인식한 천인합일의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육신이 노쇠해진 이 시기에 주자의 학문은 원숙해지고 있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향하던 도중에 옥산에서 강의(玉山講義)를 하고 고정(考亭)으로 돌아온다. 조정의 ‘僞學의 禁’에도 불구하고, 『禮書』를 편집하는 의욕을 보였다.

■ 유성룡의 은퇴와 자족

유성룡은 25세(1566년)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래 부모상을 입은 각각 2년을 제외하고 줄곧 관직에 있었다. 1598년 10월에 부원군으로 물러나고 11월에는 그마저 그만두고 안동 하회 고향으로 내려왔다. 12월에는 다시 삭탈관직이라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약 30여년 동안 영상(領相) 등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일단 벼슬길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일체 조정(서울)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후 여러 번의 국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은퇴 9년 후인 1607년(정미)에 66세로 운명할 때까지 일체 응하지 않았다. 다만 1600년 선조 비 의인왕후 박씨의 상여를 전송하기 위해 단 한 번 상경하였는데, 행인과 같이 길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곧 되돌아 왔다. 그는 벼슬살이로 성현 공부에 힘쓰려던 초지가 잊혔음을 한탄하면서, “임금과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요, 작위가 크고 넘쳤는데 일찍 은퇴하지 못한 것이 둘이요, 도를 배우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이 세 번 째 한이다.(未報君親之恩—

12)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 이승현 옮김, 1996, 『인간주자』, 창작과 비평사, 253쪽

恨也 爵位太濫而不能早退二恨也 忘有學道之志而無成三恨也 - 『서애집』 별집 권4 잡저)”. 하였다. 은퇴하여 원지정사 등에서 장수처(藏修處)를 마련하고 약10년 간 고향에 살면서 그간 소원이었던 어머니를 봉양하고 배움과 연찬에 전념하였다. 이 은퇴기에 고향에서 「퇴계연보」를 찬술(1600년)하고, 왜란에 대한 반성을 정리한 「懲愆錄」(1603년경)과 「軍門謄錄」, 「신중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관화록(觀化錄)」 등 많은 논저를 남겼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서애집』, 해제, 고전국역총서

4) 생애에서 입지·자득·자족의 관계

○ 한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단계별 배움의 목표와 경지를 의미하는 입지·자득·자족은 각각 청년기·장년기·노년기에 해당하는 자기실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은 “시에서 자극을 받고 다음에 예절로 몸을 바르게 세우고, 마지막에 음악이라는 조화로 완성된다.(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 『논어』 「태백」 8장)”라고 하는 인격체의 문화적 성숙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 배움이 학교의 교과과정처럼 한 단계를 끝내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생애에서 입지(立志)는 공자의 말씀처럼 열다섯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해이해지지 않도록(懈怠一生 便是 自暴自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여 도를 깨우칠 때까지(朝聞道 夕死可矣), 항상 스스로를 단속하고 확인해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 『시경』의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행적을 따르네.(高山仰止 景行行止)”에 대하여, 공자께서는 “詩에 仁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도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몸이 늙는 줄도 모르고 햇수가 부족한 줄도 모르며 부지런히 날마다 힘을 기울여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道)에 뜻을 세우는 입지(立地)와 그 수행을 평생 과업으로 삼을 것을 감동적으로 토로한 것이다.

○ 자득(自得) 공부 역시 평생을 통한 것임은 말할 나위없다. 노년에 이르러는 외부의 비판을 거슬리지 않게 듣고, 고집과 이기심,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에서 해방되는 ‘정신적’ 자족(自足)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자득의 단계에 들었으면 입지가 부족하더라도 자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족의 단계에서도 입지와 자득의 공부가 미흡하더라도 자족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仁)의 성숙을 위한 교육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만둘 수 있는 평생 배움이다.

참고문헌

- 周易, 論語, 孟子, 中庸, 大學, 春秋繁露, 近思錄, 朱子大典, 朱子語類, 二程集, 張載集, 傳習錄, 退溪先生文集, 三峰集, 通書, 鶴奉全集, 詩經, 國역서애집
-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표정훈 옮김, 1998,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 강현정·문순홍 옮김, 2002, 생태학 그 단함과 열림의 역사, 아카넷
- 喬淸舉, 2010, "'인(仁)'의 측면에서 본 유교문화와 가치의 불변성", 한국국학진흥원 심포지엄 발표문
- 김대식, 2001, "조선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회강과 강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1집
- 디팩 초프라 지음/이균형 옮김, 2010, 사람은 왜 늙는가, 한겨레출판
- 뚜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 뚜웨이밍 지음/정용환 옮김, 1999, 뚜웨이밍의 유학강의, 청계
-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 이승현 옮김, 1996, 인간주자, 창작과 비평사
- 유의정·정수정, 201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이택후 지음/권호 옮김, 1990, 화하미학, 동문선
- 中村香・三輪建二 編著, 2012, 生涯學習社會의 展開, 일본 玉川大學出版部
-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성리총서 5
- 최광만, 2012,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 교육사학연구 22-1호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에 관한 토론문

정 순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 교수님의 이 글은 서원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서원을 평생교육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보고, 평생학습을 위한 이념적 혹은 철학적 주제를 전통 유학의 가치 속에서 찾고자 하고 있다.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덕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아스라이 사라진 옛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평소 간과하고 있던 유학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 새롭게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미 형해화 된 개념들, 예를 들어 입지, 자득, 자족 등의 개념들을 인간의 생애 과정과 연결하여 서원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노력은 16세기에 만개하였던 옛 서원의 꿈을 다시 한 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논문은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닌 듯 하고, 이제 막 큰 윤곽선을 그리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에 몇 가지 소박한 질문으로 선생님의 전체적인 구상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김 교수님의 서원에 대한 일관된 주장은 서원이란 유학의 천일합일 사상을 체화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천일합일 사상은 서원의 경관구성에서도 드러나고, 서원의 교육내용에서도 가장 중핵적인 명제라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우주 동형론적 사고는 유학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김 교수님이 유학의 인 사상에 주목하고, 증점과 정명도의 삶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속에서 천인합일의 실체를 걷어 올리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런데 김 교수님은 지리학자답게, 천인합일에 대한 해석 작업을 천, 즉 자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서술하여 서원을 탈맥락화하지 않는가 하는 기우가 있다. 혹 서원에서 찾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의 원형을 지나치게 ‘자연’성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원의 존재의 미는 천과 인간 사이의 균형점 위에서 삶의 목표를 찾는 것에 있다. 즉 서원은 ‘자연’을 궁극적 실체로 바라보는 노장자와는 달리, 인간 세계의 삶에 더욱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서원은 역사의 소산이고, 정치 종교 경제의 집합체로서 서원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도 일정한 시대정신과 만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서원에서 예를 중시하고, 강회를 강조한 것도 인간관계의 문제와 현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구체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오늘의 시대환경에서 서원이 지향할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에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서원에 대한 재해석 작업이 역사라는 구체적 무대를 사상(捨象)하고, 너무 친환경적이거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면 서원교육이 사찰이나 도관에서 행하는 교육과 변별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선생님의 글에서 입지·자득·자족을 각각 청년기·장년기·노년기에 해당하는 자기실현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서원에서 이 세 가지 배움의 목표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른바 ‘대박’이 나리라 확신하다. 이 목표는 현재 제도교육에서는 실종된 개념이다. 좀 더 중지를 모아 이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다만 유학자들은 자득(自得)의 의미를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좀 더 달리 사용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자는 자득의 자는 독자(獨自)의 자가 아니라, 자연(自然)의 자라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혼자 창견을 내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끝에 마침내 익어 이치가 스스로 드러나는 경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김 교수님의 다음의 글에서는 이 성숙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었으면 한다.

3. 이 글에서는 명시적으로 들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서원문화와 멀어진 오늘날의 대중들을 어떻게 서원 속으로 새로 유입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다. 예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입지’를 위해 과연 서원의 문을 두드리게 될까 의구심이 든다. 이를 위해 국가나 유관 기관과 어떤 협업체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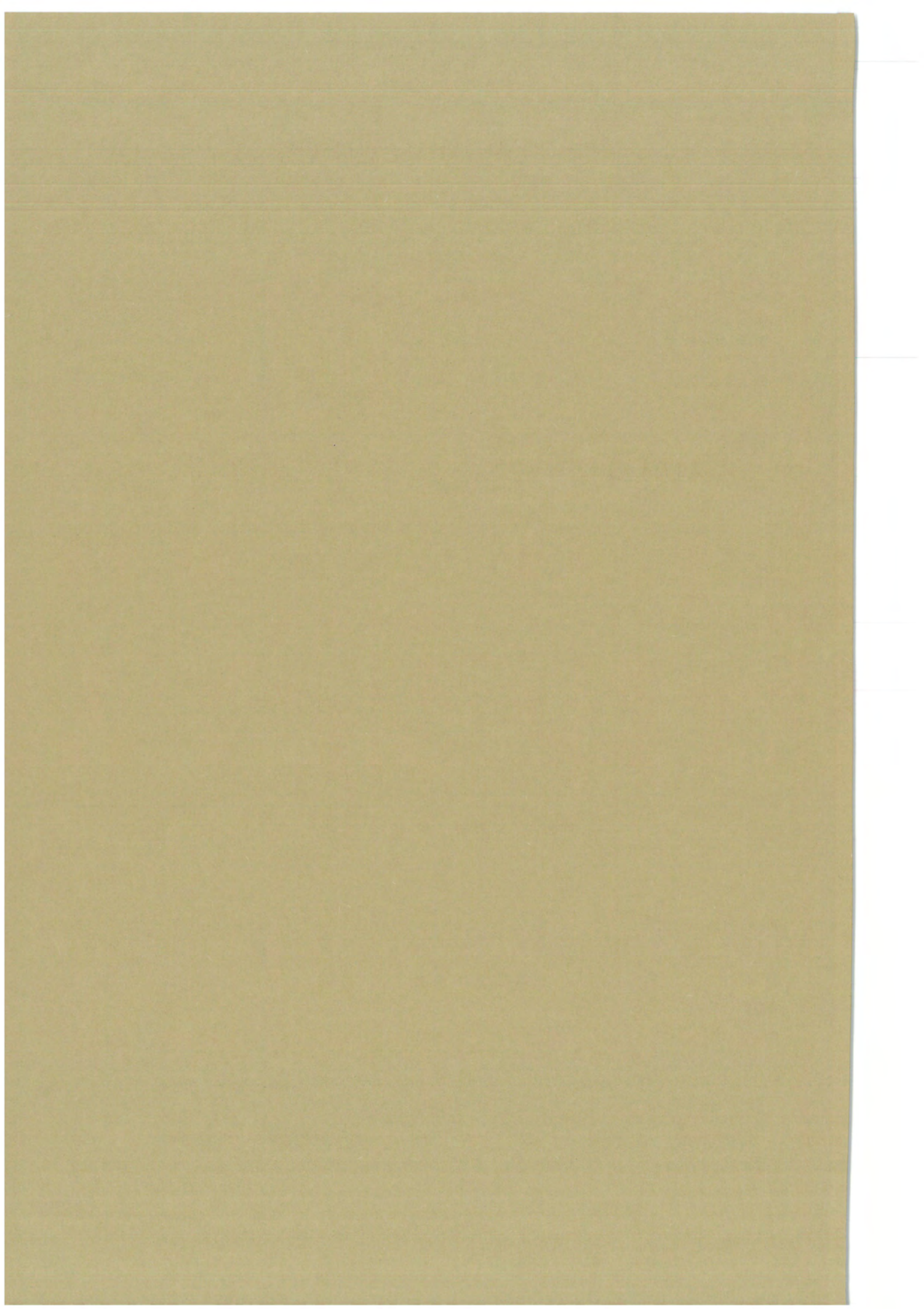
• 제2주제 •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

박 소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

박 소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유산의 ‘활용’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조건:

‘유산’에 관련된 어휘의 정의나 개념을 면밀하게 짚어가며 학술적 논의를 전개해 온 전통이 우리 학계에 항상 있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도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다르고, ‘보존’과 ‘보전’이 다르고, ‘복원’과 ‘재현’이 다르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논의는 학자들 간에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비해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유사한 논의를 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데, 언젠가부터 거부감을 주지 않는 친숙한 일상용어로 우리 사회에 이미 자리매김을 해버리지 않았나 싶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9년 4월 문화재청은 행정 조직을 재편하면서,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정책과 동급으로 문화재 활용이라는 이름을 내 건 하나의 국(局)을 새로 만들었다.¹⁾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활용’이라는 행위는 이제 보편화된 전략이자 목표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그런데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선 던져보고 싶다. 현재, 문화재청은 ‘활용’의 영문표기를 ‘Promotion’이라는 어휘를 택하여 그 의미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한편, 유산보존에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들이 지난 50 여 년 간 제시해 온 제반 보존원칙에서 우리의 ‘활용’에 가까운 용어로 오히려 ‘사용’, 즉 ‘use’라는 어휘를 쓰며 그 내용을 정리해 왔다. 이 내용을 추적해보면, 유산의 사용 혹은 활용이라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할 기본 조건들, 때로는 매우 불편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짚어 보고자 한다.²⁾

유산의 보존에 관련된 여러 국제원칙은 현재 90 여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1964년의 베니스헌장을 꼽을 수 있다.³⁾ 베니스헌장 5조는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활용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여러 조건을 일깨운다.

1)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 행정 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2009.04.28.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346395§ionId=b_sec_1&mn=NS_01_02

2) 이 부분은 2011 ICOMOS General Assembly Scientific Symposium에서 발표했던 본인의 논문의 내용을 참고로 했다. Sohyun Park, 2011 “Precautions for Heritage to be a Driver for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Related Principles manifested in the ICOMOS Charters”

<http://icomos.org/en/component/content/article?id=477:icomos-17th-general-assembly-scientific-symposium-proceedings>

3) 문화재청 (2010),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박소현

“Article 5.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is always facilitated by making use of them for some socially useful purpose. Such use is therefore desirable but it must not change the lay-out or decoration of the building. It is within these limits only that modifications demanded by a change of function should be envisaged and may be permitted.”⁴⁾

이 원칙에 의하면, 유산의 보존은 항상 유산의 활용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socially useful purpose)”라는 전제를 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특정 유산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특정 유산이 갖는 가치의 해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용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각 참여주체들 간에 공감대를 갖는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산활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소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의 주요 이슈는 ‘지역활성화’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유산활용의 스펙트럼은 실로 넓고 다양한데, ‘지역활성화’라는 주제를 매개로 하여 도시개발, 지역개발의 영역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이런 노정에서 명백히 지적하고, 인정하고, 경계를 해야 할 내용을 도출해보지 않았고, 논의와 합의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본질 상 피할 수 없는 상충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산-보존-활용-개발’로 이어지는 연동 개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산-보존-활용-개발, 이 연동 개념에서 인정해야 할 사항을 국제보존원칙 내용에 근거하여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⁵⁾

- 1) 지역개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유산의 활용과 유산의 보존에는 필연적으로 유산가치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
- 2) 개발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산에 위협적인 요소를 내포해 왔고, 이는 향후에도 그럴 소지가 크다. (개념적으로 개발과 보존에 관한 이분법적 논의는 언젠가부터 구태의연하게 들리고, 개발과 보존은 공존할 수 있다는 언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개발이 갖는 여러 속성은 근본적으로 유산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3) 유산의 진정성은 지역개발에서 대표적으로 추구되는 목표의 하나인 경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타협해도 되는 성질의 개념이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산의 진정성에 관한 개념

4) 베니스헌장 제5조. <http://icomos.org/en/charters-and-texts>

5) Sohyun Park, 앞의 논문. () 안의 내용은 부연 설명을 위해 이번에 추가된 부분

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현장에서는 유산의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 4) 여러 보존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눈여겨볼 만한 개념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 socially useful purpose’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적절한 사용 appropriate use’ ‘현명한 사용 wise use’ ‘안정적 개발 stable development’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등등은 유산활용이 지역개발의 매개로 활용될 수 있는 중재적 영역의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우리나라 유산보존 관련 분야에서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수사에 그칠 수 있겠으나, 보존과 개발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고한 전략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6) 여러 가치충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산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더욱 창의적인이고 세심한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1. 유산보존에 관한 국제원칙 현장에서 유산활용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정리

	YEAR	PARTIAL LIST OF ICOMOS DOCUMENTS, REVIEWED	KEY CONCEPTS
CHARTER	1964	VENICE CHARTER	Use for socially useful purpose.
	1981	FLORENCE CHARTER, HISTORIC GARDENS	Access restriction, everyday use, occasional use, public use,
	1987	WASHINGTON CHARTER,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	effective conservation, new functions and activities, adaptation, coherent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990	CHARTER FOR THE ARCHAEOLOGICAL HERITAGE	land use control, integral to land use, planning, and development
	1996	CHARTER FO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struction works, insensitive /commercial exploitation, access control,
	1999	CULTURAL TOURISM CHARTER	Excessive/poorly-managed tourism, too much tourism related development, sustainable way, poverty alleviation, revenue derived from tourism
	1999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Continuous us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approaches, sustainability
	1999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Sustainable preservation/development policy, integrated within the needs of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2003	ICOMOS CHARTER- PRINCIPL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For any change of use/function, conservation and safety conditions needed
	2003	ICOMOS PRINCIPLES FOR WALLPAINTINGS	Restrict regional, urban or architectural development, control public use
	2008	CHARTER ON CULTURAL ROUTES	Activity of social/economic interest, stable/sustainable development, Appropriate/sustainable use, public use plan, rational management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new economic strategies for marketing/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sites, equitable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to all
DECLARATION	1972	RESOLUTIONS,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TO ANCIENT GROUPS OF BUILDINGS	Contemporary architecture introduction, feasible in town-planning scheme/future development, in acceptance of existing fabric
	1975	RESOLUTIONS, CONSERVATION OF SMALLER HISTORIC TOWNS	Economic function of small town-no disruption/derection, Respect scale, character, visual qualities, town fabric, appropriate new use,
	1982	DECLARATION OF TLAXCALA	Regional planning means, fight for socio-economic conditions/ quality of life
	1982	DECLARATION OF DRESDEN	New social use, use of great public significance, residential use
	1993	GUIDELIN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ENSEMBLES AND SITES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change, economic and social goals including tourism
	1996	DECLARATION OF SAN ANTONIO	Authenticity,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al tourism, revenue
	1998	STOCKHOLM DECLARATION	Right to wise and appropriate use,
	2005	XI' AN DECLARATION,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Management of setting, planned creative acts, effective planning, comprehens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or systems

출처: Sohyun Park (2011).

2. 유산활용의 관점에서 본 서원의 최근 풍경과 보존관리 상의 쟁점

2013년 12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유산 목록 가운데, 2015년 1월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으로 서원을 공식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9개의 서원에 대한 현장 점검 답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다.⁶⁾ 그동안 신청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온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의 현황을 재점검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원의 활용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⁷⁾

유산활용이라는 측면에서 9개의 서원이 갖는 고유특성인 ‘교육’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서원 유산의 내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강학의 전통을 이어 현재에도 수강생들이 정기적으로 강당 등에 모여 학습을 하는 경우이다. 참여대상과 방식에서 각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9개 서원 대부분에서 유산공간을 여전히 사용하며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역사성이 있는 유산 공간 자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서원유산 내부에 관련 공간을 신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역사성 있는 서원 경내에 새로운 교육관련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70년대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었고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첫째 유형에서의 쟁점은 해당 유산의 자체를 교육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르는 훼손의 위험에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가 어떤 근거로 사용제한 등의 대처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가이다. 몇 백 년을 견뎌온 목조건축인 서원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일반인이 상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이미 일정 건물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더 확산되리라 전망한다. 이 추세로 보면, 교육공간은 별도의 건물에서 제공되는 것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서원의 내부 구역에 건립된 유물관과 교육관 등의 지속적 이용과 관련된 쟁점이 또한 존재한다. 서원의 ‘원형보존’ 혹은 ‘진정성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70년대 80년대에 새로 지어진 서원 내의 교육관련 시설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취할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점이라 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철거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여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가동 할지, 70년대 80년대 유산보존 역사의

6) 이번 현장 점검 답사 때 도움을 주신 9개의 서원과 해당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논의 및 합의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7)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 중 보존관리 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원이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다. 신청서의 보존관리 파트는 목원대 이왕기교수님, 배재대 최중현교수님 그리고 저자가 함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증거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존중하여 해석하고 보존할 것인지 등등 세심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둘째 유형은 서원 유산의 인접 외부공간에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추가 건립하여 그곳에서 교육, 전시, 집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필암서원 주변의 박물관 및 청소년교육 등 지원시설; 도산서원의 선비수련원 등; 소수서원의 선비촌; 옥사서원의 박물관 등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계서원의 경우 현재 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서원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둘째 유형에서의 쟁점은 역시 서원 주변에 새로 건립되는 교육 및 체험시설의 품격, 규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원과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적절한 균형과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유산-보존-활용-개발의 연동관계로 인한 위험성이 서원유산을 오히려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유산-보존-활용-개발의 연동된 추진은 사실 현재 지역개발의 동력이 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개발 개념과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 서원유산을 통한 교육과 체험을 앞세워 관광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지역개발의 효과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의 추진을 위한 재원도 문화재청이 아닌 정부부처로부터 받게 되고, 지향하는 가치도 역사보다는 문화를 더 강조한 관광개발이 우선시 될 소지가 크다.

셋째 유형은 인근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교실로 가서 예절교육 등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서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서원유산의 물리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유산 자체의 훼손에 관한 우려가 없고, 오히려 교육내용과 전달방식 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들을 크다.⁸⁾



서원의 활용유형 1, 2, 3
 유형 1 서원 건물 직접 활용, 도산서원(옆)
 유형 2 주변신축시설 활용, 남계서원(아래 왼편)
 유형 3 기관방문 교육, 도동서원(아래 오른편)
 사진출처: 박소현



8) 유산 교육의 내용 개발을 위한 해석, 표현, 홍보, 시행 등은 유산보존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9개 서원 모두 나름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재신청서 부록에 첨부될 보존관리계획에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아우르면, 결국 서원의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있는 각종의 다양한 개입 및 행위들은 방문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visitor service) 와 내용 경험 (visitor experience) 로 대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⁹⁾ 먼저 서원의 활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visitor service), 예를 들면 화장실, 안내소, 주차장, 접근로, 식수대, 등등 이 필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이 서원유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설치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이룬다. 더욱이 9개의 서원이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9개서원에 설치된 안내판의 통일된 양식같은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서비스는 서원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고, 특히 화장실 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의 품격은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함에 있어 화장실을 포함하는 기본서비스 시설의 공동개선이 시급함.
사진출처: 박소현

한편,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의 경험 (visitor experience)을 기반으로 서원의 활용이 의미 있어 지는데, 이 때 경험하는 내용의 도출은 서원과 서원 기능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표현, 전달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9개 서원 각각이 가지는 특별성도 중요하지만, 연속유산으로 함께 등재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9개 서원이 하나의 유산으로서 제공하

9) 서원활용의 종합적 점검을 ‘visitor service’ 와 ‘visitor experience’ 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체계는 Christian Cameron 교수와의 현장점검 및 신청서검토 종합토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로 했다. 최종회의. 2014년 4월 10일 오전 10시-12시. 서울 ‘경희궁의 아침’ 회의실. 녹취메모 보관: 이상해 박소현.

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홍보 및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 예로, 각각의 서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안내브로슈어, 및 지도 등등은 현재 9개 서원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해당서원에 관한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9개 서원을 하나의 세트로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창의적으로 개발, 표현,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 통합적 내용 경험의 총괄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할 것인가도 합의를 해야할 이슈이다. 현재 연속유산 서원의 통합적 보존관리기구의 간사역할을 (사)서원연합회의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맡고 있는데, 등재 이후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 보존, 관리, 활용하는 실무주체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어야 한다.

3. 보존관리 현황: 사적종합정비계획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의 관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보존관리 수단의 대표적인 예는 크게 두 부류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서원의 여러 보존관리 현안들은 단계별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들인데 이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이 지원하는 사적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제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

표 2.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제도적 지원 체계

법	문화재 보호법 <small>제 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small>	[계획수립주체] 관리 단체의 선정 근거 마련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small>(제 21)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small>	[계획수립]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문화재청 예규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small>문화재청 예규 제201호 (문화재청장령 제201호)</small>	[계획 및 시행지침]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근거 마련

출처: 박소현 (2011)

표2와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종합정비계획은 국가가 지정한 사적에 대해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문화재 자체의 원형보존, 보수, 정비에서부터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이르기까

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 향후 보존관리 작업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¹⁰⁾, 최근 이 계획의 중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부각되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사적 483개소에 대해 180여건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¹¹⁾

한편, 보존관리 계획의 제도적인 수단으로 사적종합정비계획이 갖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의 사적종합정비계획은 이전의 것에 비해 그 내용의 질이 훨씬 높아진 면도 있지만, 사적 종합계획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질이 높아지려면, 이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정상적 가동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되어야 하리라 본다.¹²⁾

표 3. 사적종합정비계획의 기본원칙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small>문화재청 제2012-01-001, 007 제정</smal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른 관리단체 선정, '시행령'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원형 보존 •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 • 무분별한 과잉복원 지양 •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 환경 종합적 고려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합리적 조화 도모,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이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
계획수립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단체 (법 34조 근거)
계획수립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혹은 10년단위 정비계획 수립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은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수립
문화재청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전에 추진계획 작성 • 계획 내용 → 추진 목적 및 방침 /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 추진일정 / 향후 시행안 / 기타

출처: 박소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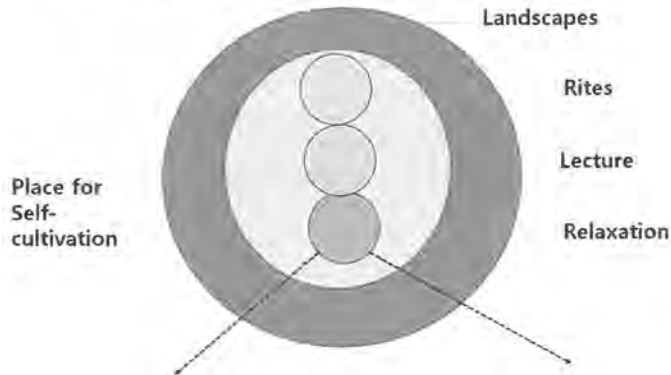
9개 서원 모두가 국가지정 사적인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적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몇몇 계획은 비교적 내용이 좋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고, 특히 구체적인 실행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활용계획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항들로, 주변환경의 정비와 개발에 대한 태도이다.

10) 문화재청, 2009,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박소현, 2011, "세계유산보호체계와 국내유산보호체계 비교,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종합정비계획'을 중심으로" ICO-Forum 발표자료.

11)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놀와, p.107.

12) 사적종합정비계획의 문제는 비단 서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적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각 단계별 문제점은 심층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 한다.

표 4. 서원의 OUV를 내포하는 공간체계의 다이어그램



출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2014.

서원이 갖는 중요성, 즉 자연환경-제향-강학-유식의 공간체계를 존중하며 비교적 무난하게 주변 환경 정비가 이루어진 곳도 있으나, 아직 이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로, 무성서원의 주변환경에 대해 적절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한편, 주변환경 개발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한데, 체험관, 유물전시관 등 부대시설의 계획이 종합정비계획의 자체 내용으로 제안되기도 하고, 타 관광계획에 의해 제공된 시설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결국 유산활용의 명목으로 개발과 관광에 대한 경계심을 자발적으로 해제해 버린 우리사회의 정황도 있다. 9개 유산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속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남계서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9개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의의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일로 하나를 꼽으라면, 등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보존관리 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에 의해 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용해 왔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해오던 보존관리 방식을 한 번 더 상향시켜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9개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전 세계와 후대에 좀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보존관리 상의 문제점 혹은 부족한 점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고, 9개 서원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현황을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9개 서원 모두, 보존관리 상의 아쉬운 점들을 현재 다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적 심정적 지원을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점이 현명하게 사용하게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놀와

문화재청, 2009,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2010, 문화유산보존을 위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박소현

Sohyun Park, 2011 “Precautions for Heritage to be a Driver for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Related Principles manifested in the ICOMOS Charters”

<http://icomos.org/en/component/content/article?id=477:icomos-17th-general-assembly-scientific-symposium-proceedings>

박소현, 2011, “세계유산보호체계와 국내유산보호체계 비교,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종합정비계획’을 중심으로” ICO-Forum 발표자료.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안).

유산보존원칙 관련의 ICOMOS 헌장들

Venice Charter (1964), Article 5, www.international.icomos.org

Florence Charter (1981), Article 21, www.international.icomos.org

Washington Charter (1987), Article 1, 8, 9, www.international.icomos.org

Resolutions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maller Historic Towns, Article 5-iii, 5-i www.international.icomos.org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harter: Managing Tourism at Places of Heritage Significance (1999), Principle 2, www.international.icomos.org

San Antonio Declaration (1975), Article 7;

Burra Charter (1999), Article 2, 3. www.australia.icomo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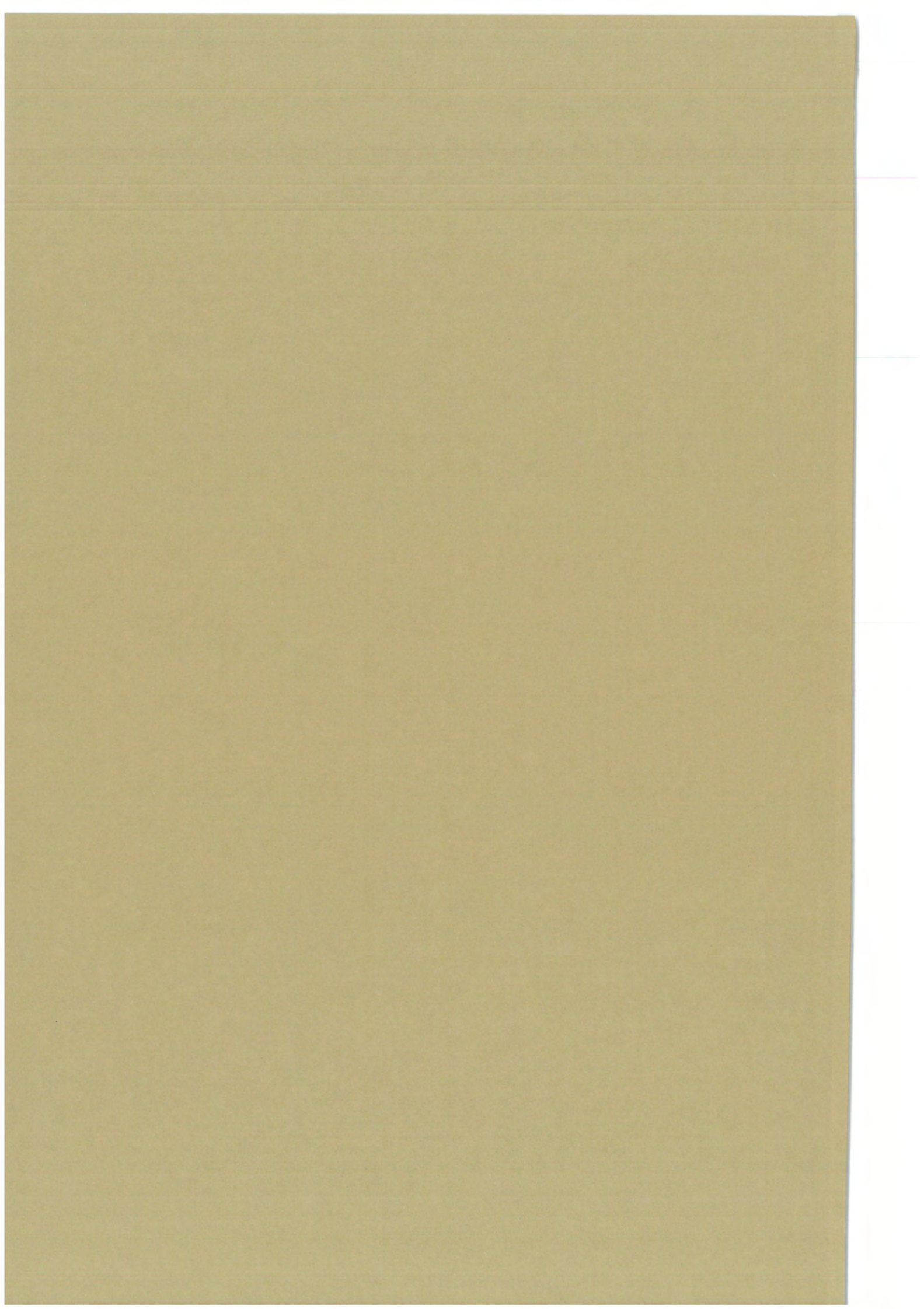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 제3주제 •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강 진 갑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강 진 갑

경기대학교 교수

1. 서론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 등재대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의 자치단체,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공동으로 등재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2016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달성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의 하나가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이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이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기원은 조선시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교육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었는데 중앙에 대학 격인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사학인 서원과 관학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한국인 교육열의 출발점이었으며, 한국 교육입국의 상징적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한국 교육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하다. 서원은 건축미도 뛰어나 건축문화유산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원은 교육과 제향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는 유교의 중심 기관이다. 이제 서원은 한국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이 지닌 진정성,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기에 지금 한국 정부와 문화계는 서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2002년 12월 기준으로 672개의 서원이 있다. 그런데 이들 서원의 현실을 살펴보면 서원의 제향과 교육 기능 두 가지 기능 중 제향 기능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교육 기능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교육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서원이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원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교문화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시대와 맞지 않은 낡은 과거 유산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서원을 교육 기관으로서 큰 비중을 두지 않다 보니 서원의 운영 시스템은 취약하다. 서원의 현재 인적 구성, 공간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구조 등 운영 시스템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서원은 살아있는 교육, 문화공간이 아니라 박물관 속의 박제화된 유물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본고는 서원의 현 실태를 개선하여 서원이 다시 우리시대 중요한 교육기관,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서원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서원이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기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¹⁾

2. 서원의 역사와 현재 모습

2-1. 서원의 역사와 가치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주자가 백록동에 서원을 세운 남송시대와 원, 명을 거치면서 성행하였다. 한국에서 서원의 역사는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을 창건한데서 시작되었다.²⁾

조선의 교육 체제는 중앙에 국립대학 격인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관학인 향교와 사학인 서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이 번창할 때는 서원과 성격이 비슷한 사우까지 포함하면 서원은 909 개소였다. 관학인 향교를 포함하면 조선후기에 지방에는 1,200여개의 학교가 있었다. 이처럼 잘 짜인 교육 시스템이 조선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³⁾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서원은 구성원들이 배우고 본받고 싶은 분을 모셔서 제사를 지냈고, 여기서 선비들이 길러졌다. 조선시대 서원 건물은 호화롭게 지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지녔을 경우라도 규모는 작았으며 질박하였다.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과 정신을 중시하는 선비가 공부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기 때문이다.⁴⁾ 서원은 이처럼 조선시대 교육의 중심기관이면서, 제향을 통해 유교의 전통, 유교 사회 문화 체제를 유지시키는 문화기관이기도 하였다.

2-2. 서원의 현재 모습

2-2-1. 서원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서원 수는 672개소이다. 서원은 향토유적을 포함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70개소이다. 2010년 12월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숫자가 167개소에 불과했는데, 2년 동안 103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비지정 문화재 서원은 402개소로 비지정 서원과 문화재 지정 서원은 6:4 정도이다.

1) 본고는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윤유석, 임영상, 박성진, 최정준, 이성학, 윤여빈, 이지훈, 김선혜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인 「경기도 유교 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연구」 내용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둔다. 본 보고서에 인용한 글은 일일이 주를 달지 않았다.

2) 「서원」, 『한국민족문화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985&cid=404&categoryId=404>)

3) 강진갑 외, 2013, 「경기도 유교 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연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5쪽.

4) 최준석, 「서원」,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2&contents_id=4433)

서원이 빠른 속도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복원된 서원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서원 자체의 재정적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서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유림들이 충당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서원을 출입하고 운영하는 유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서원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의 하나이다.

서원을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672개 소 중 유림이 관리하는 곳은 375개소(65%)이고, 문중이 255개소(3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10개소, 사단법인 5개소, 학교법인 5개소, 개인관리 20개소 등이다. 여기서 유림이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관리권을 지역 유림들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문중이라 함은 단일 문중에서 설립한 서원이거나 혹은 유림들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주향의 후손들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처럼 관리사무소를 서원에 두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와 새로 복원 혹은 중수 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이 자치단체로 기부 채납되거나 소유권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경우를 말한다. 사단법인으로는 사충서원, 설봉서원, 송록서원, 장절서원, 충현서원 등 5개소가 있으며, 학교로 귀속된 곳 또한 병산서원·역동서원·구계서원·화산서원·백학서원 등 5개소이다. 20여 개소는 개인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2-2-2. 서원의 교육 기능 약화

현재 서원 상당수는 제향 기능만 남아 있고 교육의 기능은 매우 약해졌다. 그러다보니 특히 민간에서 관리하는 서원의 경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며 언제나 문이 닫힌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복구한 서원이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몇몇 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散在)하는 서원 상당수가 해당되는 문제이다.

3. 한국사회 인문학에 대한 관심 고조와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

3-1. 한국 사회에 부는 인문학 열풍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인문학 강좌에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인문학자들이 모였다 하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였는데, 여기 저기서 인문학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기업 정신이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을 결합하는데 있다고 발언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⁵⁾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자세

5) 강영안, 2013, 『이웃의 인문학: 이웃은 누구인가?』, 『2013년도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 이웃의 인문학』,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수원시·한국연구재단, 7쪽.

를 찾기 시작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국민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8,402달러였고, 2011년에는 2만 2,489달러였다. 2.7배나 성장하였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산업화를 19년 만에 달성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은 크게 늘어났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8,402달러였고, 2011년에는 2만 2,489달러였다. 2.7배나 성장하였다. 그런데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민의 수는 1993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은 52%이다. 1%도 늘지 않았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회지표 중 하나가 기대수명이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201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27세이다. 2010년 유엔이 조사한 세계 기대수명인 67.9세, OECD 국가 평균 78.9세보다 높다. 19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1.93세였는데, 40여 년 만에 31%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의료시스템 개선, 국민의 영양상태 개선의 결과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다.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012년에는 24위였고, 2013년에는 27위로 떨어졌다. 자살률은 세계 2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자살을 하였다. 2010년 OECD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2.6배 높다. 더욱 무제는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2005년 남자는 45.1명 여자는 18.6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남자가 49.6명, 여자가 21.4명으로 남자는 10%, 여자는 15% 늘어났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⁶⁾

행복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2010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에서의 불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하위 수준이어서 놀랍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고 풀이 죽어 있다고 하였다. 에드 디너 교수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성취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슬픔, 권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낄수록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한국사회의 물질주의에서 찾고 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면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할 수가 없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었으면 하지만,

6) 강진갑, 2013,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문화융성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개 토론회 자료집』, 김장실 국회의원실.

집을 소유하고 나면 집의 크기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⁷⁾

2013년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에 따르면 한국 인들은 OECD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중 54.9%가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OECD 기준으로 고소득층인 사람 중에서도 24.0%가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주관적인 행복감이 상승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유한 재화의 많고 적음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 물질주의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주의와 더불어 주위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같은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이다.⁹⁾ 한국인들은 그동안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그 결과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물질적인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훌륭한 관계 맺기이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학교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제자와의 관계 등에서 만족하는 이들은 실사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타인과의 관계만 만족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양자가 모두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조건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킬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문학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천천히 관찰하게 해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나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나와 관계를 가진 타인, 그리고 인류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¹⁰⁾ 피로한 사회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이들이 인문학에서 그 길을 찾으려 하기에

7) 강진갑,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문학』, 『경기신문』 2013년 4월 3일자.

8) 「현대연구 “OECD기준 중산층 55% ‘나는 저소득층’」, 『연합뉴스』 2013년 8월 27일자.

9) 강진갑, 앞의 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문학』.

인문학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행복이 인간관계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사회의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살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호해 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판적 시민 정신이다. 인문학의 본질은 비판정신이다. 인문학은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에게도 필요하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¹¹⁾

3-2.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의 현장을 가보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은 문사철(文史哲)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한국 인문학 역사에서 유학을 빼놓을 수 없다. 유학이 문사철을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인문학 열풍의 현장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유교는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인가?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우리 시대의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유학은 우리시대에도 통용되는 인문학이 될 수 없는가? 유교에 대한 현대 한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유교가 여성 차별적이고, 충과 효를 강조하는데서 보듯이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 정실주의와 보수적이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1985년과 2005년도 통계청의 종교인 통계를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등 한국의 모든 종교의 신자가 늘고 있는데, 유독 유교만 신자 수가 483,366명에서 104,575명으로 78.4%가 줄었다. 한국 사회는 유교를 버리고 있다.¹²⁾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교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도 1919년 5월 4일 일어난 신문화운동 시기에 유교는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탄받았다. 세계 문화를 주도해 온 강대국 중국이 19세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속절없이 무너지자, 중국 지식인들은 그 원인이 유학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체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¹³⁾ 20세기 들어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유교를 멀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유교에 대해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한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조

10) 강진갑, 「치유와 희망의 인문학」, 『경기신문』 2013년 5월 16일자.

11) 강진갑, 2013,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과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문화제 50주년 기념 문화포럼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과 수원화성문화제 자료집』, 9-13쪽.

12) 강진갑, 2014,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유교와 유학」,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칼럼 일흔 한 번째 이야기.
(<http://www.itkc.or.kr/itkc/post/PostServiceDetail.jsp?menuId=M0491&clonId=POST0019&postUuid=uu-05cf172d-7a06-4266-ad49-207d>)

13) KBS 인사이트 아시아 유교제작팀, 2007, 『유교 아시아의 힘』, 예담, 405쪽.

선시대 유교의 역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세계 학계에서도 유교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 이들 국가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고 유교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힘을 유교에서 찾으려 하였다. 학계의 평가는 이처럼 달라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한국 유교가 조선시대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발전된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라서 현대 자본주의와 맞지 않아서인가?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대부분이 지금부터 1,500년에서 2,000년 이전 시기, 유목사회 또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나 지금 세계 종교로 인류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유교만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필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것이 이유라 생각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는 모두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의 경전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계적인 종교는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정리되어 오늘날을 사는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유교는 어떠한가? 유교도 그 발상지인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각각의 시대에 맞추어 끊임 없는 재해석의 과정을 밟아왔다. 성리학이나 양명학, 실학 모두 당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20세기 한국사회는 전반기에 식민지를, 후반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상적으로 서구사상이 유입되면서 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는 20세기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¹⁵⁾

그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유교와 유학이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가치 체계이고 현세에 별 쓸모없는 낡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유교에 대한 냉담은 유교 자체에 대한 보수성보다는, 재해석하여 시대에 맞는 변화의 기회를 놓친 유교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유교가 지금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유교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 유학자 장재(張載)는 모든 사람이 동포라는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효라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 모든 사람은 나의 동포요, 여타 사물과 생명들은 내 친구이다. 군주는 집안의 만이에 해당하고 대신들은 그 만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내 집 어른을 받드는 것이고, 힘없고 외로운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내 자식을 거두는 일과 같다. 위대한 자는 이 덕성이 몸에 밴 사람이고, 현자는 우리

14) 강진갑, 앞의 글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와 수원 화성문화제」, 16-17쪽.

15) 박연규, 2013, 「울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운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논평, 프린트본.

중 뛰어난 사람이다. 천하에 고단하고 병든 사람, 부모 없고 자식 없고 지아비 없는 사람이 모두 나의 형제이다. 넘어지고도 호소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 덕성을 지켜가는 것이 아들 된 도리요, 이 길을 싫어하지 않고 즐겨 따르는 자가 진정한 효자이다. 이 덕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패덕이요, 인간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장재는 사회적 약자야말로 우리 형제인데 이들을 돕는 것이 효자라고 하고 있다. 효를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효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장재에게서 읽을 수 있다.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성인은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사람 모두를 동포로 보자는 퇴계와 장재의 글은 사해동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인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다. 이 두 가지 인용 사례가 유교에 내포되어 있는 인류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효를 강조하는 서원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세계인을 같은 동포로 보고, 아프리카 어린이를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 빈곤지역 사람들을 돕자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국과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도 유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서원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일이 이러한 일들이 아닐까?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가 유교와 서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교를 우리 시대에 맞는 가치,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 시대의 훌륭한 문화자산이 되게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한 재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서원이 앞서서 이를 연구, 교육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유교가 변할 때 일반인들은 유교를 우리 시대의 소중한 문화, 정신적 자산으로 받아들일 것이다.¹⁶⁾

4. 서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개선 방안

4-1. 한국인들의 선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를 길러낸 교육기관인데, 선비에 대한 한국인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14년 2월 중앙일보에 실렸다. 한국인 75%가 선비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16) 강진갑, 앞의 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유교와 유학」.

다. 선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12%에 불과하였다. 조선 시대 유교 사회를 이끈 선비를 좋게 보고 우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 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5.1%는 그 이유로 선비의 ‘인격 수양’을 23.7%는 ‘칭림’을 들었다. 선비정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권위주의’, ‘당파 싸움’, ‘융통성 부족’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선비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가 각각 41.55와 45.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¹⁷⁾ 선비 정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으로 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통계는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유교가 다시 우리 사회의 문화자원, 정신 자원이 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회적 신호라 생각된다.

왜 유교와 유학을 우리 시대의 문화자산, 정신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국 역사에서 전통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조선 시대 문화이다. 조선 시대 문화는 유교문화이다. 때문에 우리가 전통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유교와 유학을 버릴 수 없다. 유교와 유학을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인문학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교와 유학이 우리 시대의 문화 자원, 우리 시대 문제에 답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화 작업을 계속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유학과 유교의 현대화는 서원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위기에 처한 세계 어린이를 돕는 일과 같은 조그마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2. 서원 활성화 기본 방향

서원의 활성화는 서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강학 기능 즉 교육, 연구 기능을 회복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유학에 대한 재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과 인성교육, 한문교육, 경전교육, 고전 배우기, 다도교육, 한시 작법 등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원을 유교문화 체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체험은 체류자 또는 방문자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관례, 혼례, 제례, 강학례, 고유, 분향, 향사례,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투호, 수행, 전통 음악, 서예, 시조, 서화, 차, 한복체험, 전통놀이, 탁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공자의 육예(六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피정이나 사찰에서 실시하는 수행의 방법처럼 유교식 정좌(靜坐)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7) 『국민 75% 선비정신 중요』, 『중앙일보』 2014년 2월 23일자.

4-3. 서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4-3-1. 활용 시설의 확보

활용 시설 확보이다. 먼저 서원 자체를 활용하여야 하지만 교육 기능이 확대되면 인근의 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서원이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위로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경북이나 경남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남명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유학 연구와 편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철학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호유학이 경기실학, 위정척사의 호국 의병운동으로 확대되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에 한국기호학연구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 논산시 또한 김장생·김집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기호유학 선양기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도 경기유학의 중심 거점이 건립되어 타 지역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도 경기국학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4-3-2. 인적 자원의 확보

인적 자원 확보이다. 제향에 필요한 인력은 유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교육과 체험 등의 활동에 적합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유교에 대해 금장태(서울대 교수)는 “유교조직의 성격이 이미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므로 시대변화의 추이에 더욱 멀어져 가고 대중화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서원의 운영 주체가 고령층 중심의 유림 집단이나 문중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하여 유교 교육과 체험, 관광안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사도 없는 학교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님 없이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서원에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4-3-3.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한정적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최고의 지식인이 출입한 공간이었다. 오늘날도 그러한 기능을 회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원의 특징을 살려 특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통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통 프로그램은 유교 경전과 한문교육, 예절교육, 서예 등 전통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느 향교·서원에서나 활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특별 프로그램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적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효 가족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효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획은 효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우리시대에 맞는 가족 사랑으로 재해석하는 일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효행상 대상자 선정 방식부터 바꾸어 보자. 자기희생적인 효를 실행한 사람 외에 즐겁게 효를 행한 사람에게도 효행상을 시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우리 시대 며느리와 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효 가족 사랑운동을 펼쳐나가자, 효 가족사랑 매뉴얼을 개발하여 효를 즐겁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해 줄 ‘효 가족사랑’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사랑 프로그램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쓰기,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캠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캠프 등이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님께 감사장 드리고, 부상(副賞)으로 어머니 일 도와주는 증서를 증정하기(예; 어린아이가 설거지 5번 해 드리기 등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UCC공모전 개최, 청소년이 부모에 보내는 영상편지 쓰기, 청소년의 가족사랑 토론회 등이 있다. 며느리와 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며느리들의 부모 모시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새로운 부모사랑, 가족사랑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토론의 장 ‘며느리들의 수다’, 딸의 입장에서 효에 대해 토론하는 ‘딸들의 푸념’을 생각할 수 있다. 며느리들의 수다’와 ‘딸들의 수다’는 토론 형식, 또는 연극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받는 부모 되기 프로그램으로는 가칭 부모들이 효도 받는 방법 경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명절 준비를 가족 모두가 같이 하기 캠페인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프로그램이다. 며느리들이 명절 때의 동 수준은 거의 중노동 수준이다. 이제 이 노동을 아버지, 딸, 사위, 아들이 함께하자는 캠페인을 서원에서 먼저 실천해보자¹⁸⁾

5. 서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5-1. 법률 및 조례 제정

서원활성화는 정부의 지원과 법 제도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 서원 공간 운영, 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근거로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서원을 활성화시키는 관계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서원 활성화를 위한 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18) 강진갑, 2013, 『우리 시대 유교는 왜 필요한가』, 『유교 문화현대화를 위한 서원 향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경기문화재단·한국의국어대학교·과천향교, 19-20쪽.

5-1-1. 지방자치단체 서원관련 조례 제정 현황

현재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표1. 지역별 서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2004.7.5.
경기 이천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07.7.2.
경북 안동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2010.1.7.
전남 장성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1.5.13.
충남 서천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9.28.

지방자치단체의 서원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이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이다. 둘째,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지역문화 발전이다.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우이다. 셋째, 서원의 운영 및 관리이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이다.

조례의 주요 조항으로는 첫째, 수행 사업 관련 조항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수행 사업 규정, 춘추 제향 봉행,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 선인들의 유적 발굴 및 선양사업,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원의 시설 관리·운영,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둘째, 관리·운영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 이용 및 관람에 관한 규정, 서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 자료의 관리 및 반출에 관한 규정,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셋째, 관리·운영의 위탁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의 기간·성격·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청문에 관한 사항 규정,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에 대한보고 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수시 점검과 지도감독에 응해야 함을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다섯째, 편의시설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등이 있다.

여섯째,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서원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수목의 손상에 대한 변상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5개 서원 조례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서원 관련 조례 조항의 항목 비교

조항 항목		구강서원	설봉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문헌서원
수행사업 관련		○	○	-	-	○
관리 운영 관련	운영 주체	○	○	-	-	-
	시설 이용 및 관람	-	○	○	○	○
	사용	-	-	-	○	○
	자료의 관리 및 반출	-	-	-	○	-
	운영비 지원	○	○	-	○	○
위탁 관련	위탁운영 기간 및 성격	○	○	-	○	○
	수탁자의 의무사항	○	○	-	○	○
	위탁의 취소 및 청문	○	○	-	○	○
	변상책임	○	○	-	○	○
	보고 및 지도감독	○	○	-	-	○
운영위원회 관련		-	-	-	○	-
편의시설 관련		-	-	-	○	○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	-	-	○	○

5개 자치단체의 서원 조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서원의 운영규정에 대한 시·군·구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있으나 지역의 향교와 서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부재하다. 둘째, 관람과 사용, 위탁과 수탁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중장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셋째, 관람자, 사용자, 위탁자, 수탁자가 자치법규를 지켜야하는 주체인 경우가 많으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문중, 지역유림, 지역주민, 민간, 지자체의 행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부재하다. 넷째, 도산서원을 제외하고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법규를 통해 서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도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서원을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사회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원의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 정신문화유산이자 교육문화유산인 서원이 현대 사회에 맞게 기능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5-1-2. 서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자치단체는 서원의 효과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서원의 지원에 따른 운영의 효과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원의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인성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례는 서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서원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나. 조례 제정 방향

조례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원의 활성화 계획 수립, 운영 자율권의 보장과 활성화 사업의 종류, 서원 관리주체의 책무, 활성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력양성과 교육·컨설팅 실시, 정부기관·기초 자치단체·민간단체·유림단체 등 광역 차원의 교류 및 협력,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사업 대상과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규정, 사업비 지원과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원 기한,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 결과 보고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서원 관리·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5-2-1. 서원의 기부채납 혹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유림이나 문중 혹은 서원을 운영하는 개인은 서원의 개방적 운영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이나 문중 단일 선조를 배향하는 서원은 공공재로 판단토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림이 소유한 서원 가운데 정상적인 서원 시설을 갖춘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공화된 민족 교육문화 자산의 영역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림들이 재정부족과 고령화,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서원 본연의 기능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서원의 가치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유림들의 동의하에 제향공간을 제외하고 기타 공간에 대해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거나 공공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서원의 관리운영에 사회적 공익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서원이 모시고 있는 선현들의 정신적 자산과 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2. 서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서원은 민족의 공유자산이다. 서원이 활성화 되려면 유림들이나 후손의 힘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시청과 관련 유림, 이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려는 교육청과 문화원, 문화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해야 이를 보존할 수 있을뿐더러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은 유림들이 향사를 지내는데,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 활용하기도 하고 제향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거나 문화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활용단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선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간에 지역사회 출신의 정년퇴임 교수를 서원장으로 초빙하여 상설 강좌를 개설하거나 일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서원들이 있다.

5-2-3. 서원시설의 위탁에 대한 유림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

많은 유림들은 서원이 존현(尊賢)의 공간인 관계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근암서원이나 설봉서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의 공공화는 서원 관리운영의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서원이 받들고 있는 분들의 선양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향사시설을 제외한 서원 공간에 대한 운영의 위탁이라는 항목을 서원 유림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서원답의 적은 소출로 제향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춘추향을 제외하고는 자물쇠로 잠가놓는 서원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목재건축은 갈고닦고 사람의 훈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보수만 반복할 뿐이다. 자치단체,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학자,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위탁은 서원의 수명을 오래 끌고 갈 것이다.

6. 결론

서원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이후 성리학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조선사회를 움직이는 기둥이었고 조선사회 교육 시스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세기 식민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유교가 새로운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유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 그 결과 서원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서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이 매우 취약해졌다.

서원이 다시 우리 교육기관,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가 우리시대의 문화자원, 정신 자원이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교의 현대적 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원이 유교를 기본으로 한 교육 기관으로 거듭 태어난다면 서원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의 운영 시스템이 대폭 보강되어야 하고, 서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추어 서원의 자구적인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제4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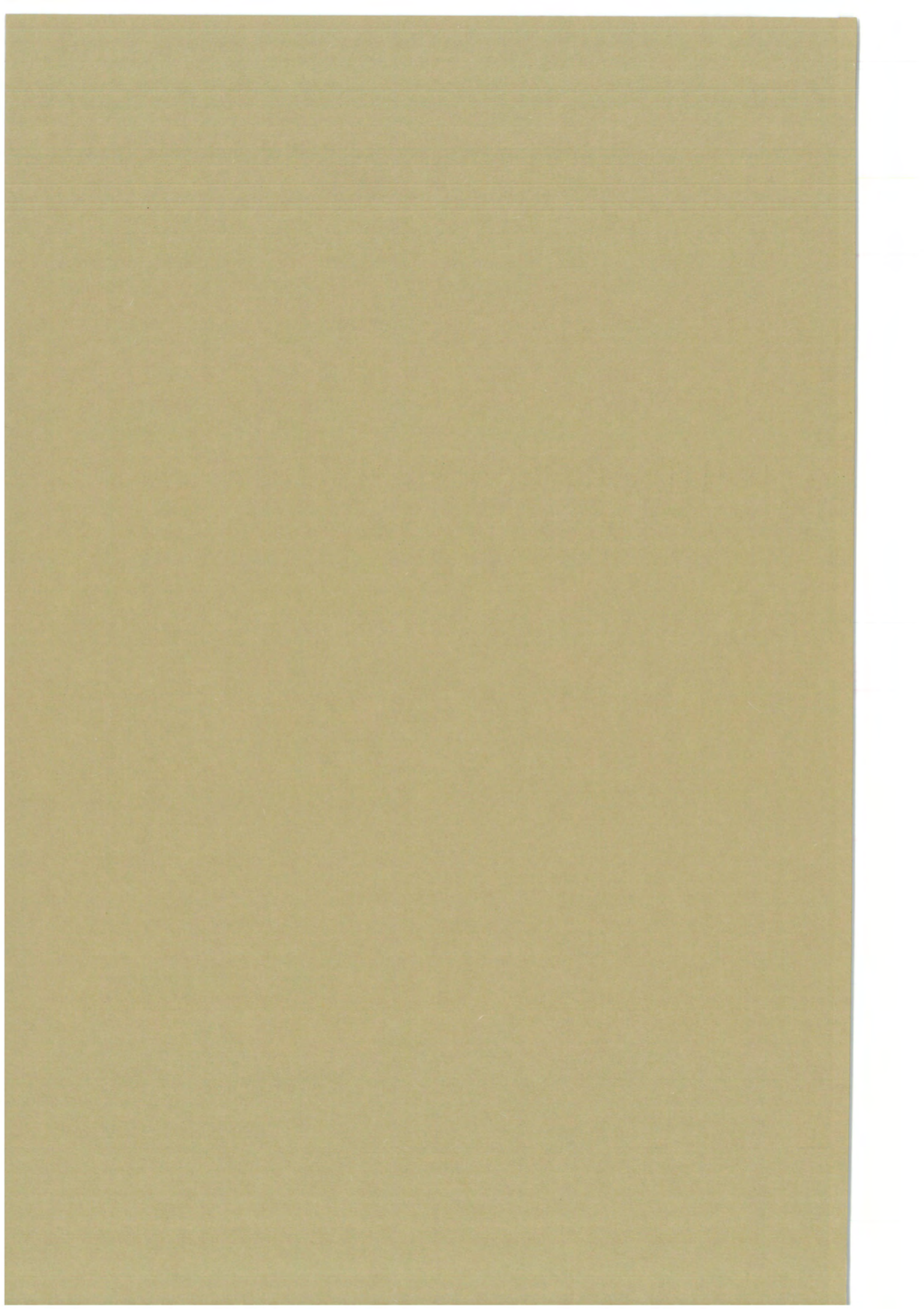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 경 환

한국국학진흥원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 경 환

한국국학진흥원

1. 유학적 인간관과 서원 교육

공자에게서 비롯된 유학은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서 규정한다. 덕성의 함양을 통한 인격 완성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품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고, 그 씨앗이야말로 말로 여타의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사람이게 해주는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¹⁾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한 맹자에 와서 확정되는 성선설은 바로 그러한 유학적 인간 이해의 산물이었다.

사람을 가능성의 존재로 본다는 것은 곧 미완성의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인간은 감각과 육체의 능력 등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하고, 인지와 감성 등의 기능은 물론이고 도덕 판단과 실천의 능력도 불완전 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불린다. 인간의 위대함은 태어난 시점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후천적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후천적인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다. 『논어』 첫 장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얼마나 기쁜가”라는 구절은 배움을 통해 자아의 완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기쁨을 언급한 것이고, “길 동무 셋 가운데 내가 스승으로 삼아 배울 만 한 사람 한 사람쯤은 있기 마련이다”는 구절은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과 관계 속에 배움과 공부가 있기 마련이라는 이른바 배움의 일상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배움의 가장 유효한 형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다. 그러므로 유학은 끊임없이 배움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격의 완성을 향한 배움을 위해 학교의 설립과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장려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북송대에 등장한 유학인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성인을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의 하나인 교육의 의의를 더욱 강조했다. 이 시기 성리학에서 스승의 의의와 역할을 중시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 지식의 전수 경로를 따지는 도통道統의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교육의 의미에 대한

1) 『孟子·離婁』,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새로운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

배움을 통해 추구해야 할 진리가 높고 먼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사람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학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경험이다 배움임을 강조했다.³⁾ 성리학에 영향을 준 선불교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를 모두 깨달음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고정적이고 형식적인 수양방법을 배제했던 것처럼.

자연과의 교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에서 겪는 사건들이 모두 공부와 수양의 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중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독서와 강학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로를 계발시키고 분발하는 학교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학교들 중에서도 부와 권력 등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이익을 위한 학문(爲人之學)이 아닌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학문(爲己之學)에 중점을 두고,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 없이 자율적인 방식의 교육이 가능한 서원이 가장 선호되었다. 주자를 비롯한 송대 성리학자들이 의욕적으로 전개한 서원건립 운동은 그러한 인식의 결과였다.

주자는 유학이 당나라 시기에 와서 사장학 중심으로 흘러감으로써 공자와 맹자가 강조한 일상의 실천윤리와 수양의 학문에서 과거를 위한 공부로 변질된 것을 비판하고, 그 보완책으로 관학과는 별도의 성리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것은 곧 서원설립 운동으로 나타났다.

주자는 「백록동규후서(白鹿洞規後叙)」에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옛 성현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하는 뜻은 다 의리를 풀이하고 밝혀 그 몸을 닦은 뒤에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이지, 한갓 넓게 보고 열심히 기억하여 문장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녹봉(祿俸)의 이익이나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학문하는 사람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⁴⁾며 옛날의 위기지학의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서원 건립에 힘을 기울인 취지를 말하고 있다. 백록동서원 중건을 통해 서원의 제도를 확립해 새로운 교육을 중건하려한 주자의 구상은 명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300여개소의 이름난 서원이 들어설 정도로 성행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사정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경향 각지에는 서당·향교·서원·성균관 등 공사립의 다양한 학교가 있었지만, 유학적 인격인 선비를 양성하고 세련되고 깊이 있는 유교문화를 기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서원이었다. 조선사회는 선비들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었고 선비들은 교육을 통해 길러졌는데, 그 선비 양성의 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서원이었던 것이다.

2) 시마다 전지, 『주자학과 양명학』 25쪽~33쪽.

3) 『中庸集註』,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4) 『聖學十圖·白鹿洞規後叙』, “竊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 今之爲學者, 既反是矣.”

조선시대 퇴계의 서원건립 운동으로 본격화된 서원의 출현은 여말에 수입된 성리학 이 땅에서 착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앞서 언급했듯 성리학은 과거를 위한 학문 혹은 말단적인 문장 짓기로서의 학문을 지양하고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인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고, 바로 그러한 유학적 교육관에 부응해 새롭게 나타난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보급은 교육의 무게중심이 교육형식의 측면에서 관학에서 사학으로 옮겨가고, 교육목표의 측면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종래의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대체하며 교육주체의 측면에서는 재지사림이 훈구관료를 대체해 가는 조선중기의 전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퇴계는 위기지학을 “도리를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삼고, 덕행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삼아서, 먼 것보다 가까운 데서, 밖보다 안에서 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실천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서,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실천하는 데 힘쓰지 않고 거짓을 꾸미고 바깥으로 좋아서 이름을 구하고 칭찬을 취하는” 위인지학과 엄격히 구분하고자 했다. 이는 서원건립과 운영에 열성이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학문과 혹은 교육관과 서원에 저는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관료가 되기 위한 과거공부를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물론 그들도 관료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내면의 덕성 함양이 본령이 되어야 할 교육이 권력과 명예를 닦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천자에서 평민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⁵⁾는 『대학』의 구절이 말해주듯 도덕 중심주의의 사고를 지녔던 성리학자들은 내면의 덕성이 갖추어지면 정사政事는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낙관론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은 향촌에 은거하며 덕성을 함양함으로서 주변에 자연스런 감화와 교화를 미치는 한편 후학 교육을 통해 유학의 도를 이어가는 것이 관료에 나아가 어진 정치를 펴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서원을 통한 교육이었다. 요컨대 서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는 위기지학의 실현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한국 서원의 효시는 중종 38년(1543) 경상도 풍기군 순흥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그런데 백운동서원은 그 고장 출신의 고려말 유학자이던 안향을 제향하고자 건립한 문성공묘에 부속된 ‘건물’로서의 서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강학 공간으로서의 강당, 동서재와 존현처로서의 사묘祠廟를 기본 구조로 하되 과거공부를 물리치고 강학·장수를 근본 기능으로 삼음으로써 사묘는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확립한 인물은 주세붕의 뒤를 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해 이를 소수서원으로 발전시켰던 퇴계 이황이었다.⁶⁾

5) 『大學』,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6) 정만조, 『도산서원과 영남의 지식문화』(『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3), 17쪽

퇴계 이황은 중국의 주자와 뜻을 같이 하여 “문장과 과거와 이록利祿을 추구하는 습성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미친 지경으로 내달리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서울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가 모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깜깜하게 모르고 학문에 전혀 힘쓰지 않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선비는 산이나 들판으로 숨어 들어가 함께 들은 것을 강구하고, 도道를 밝혀 자기를 완성하고 남을 완성시키니, 후세에 서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며 서원 건립운동을 추진하게 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다.

백운동서원의 사액운동을 비롯하여 임고臨臯·이산伊山·영봉迎鳳·역동易東, 연경研經 등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기울인 퇴계의 노력은 그의 사후 후학들이 건원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 결과 옥산(1572), 도산(1574), 여강(1575), 도남(1605), 도동(1605), 병산서원(1610) 등이 속속 출현하여 권역별 거점 서원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17~18세기 200년 동안만도 무려 257개의 원사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⁷⁾

그러한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퇴계 이황의 강학과 장수의 터전이었던 안동의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온실이자 퇴계학파의 산실인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도산서원이 자리한 곳은 뒤쪽으로 작은 산등성이가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돌아서 흐르며 그 강 너머에는 푸른 평원이 펼쳐져 있어 절경을 이룬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퇴계 이황은 50세 때(1557년)에 이곳에 터를 잡고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세워 제자들을 받아들여 10여 년 동안 인재양성에 힘썼다. 퇴계 사후에 그를 흠모하던 제자와 안동의 선비들이 기존의 건물에 사당을 갖추고 진도문進道門, 동서東西齋, 광명실光明室, 전사청典祀廳, 장판각藏板閣 등을 보완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춘 뒤 나라에 요청해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았다.

도산서원 서립의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퇴계의 사후 선조 5년 4월에 열린 도산서당 문도들 모임에서 ‘선사를 제향하는 사묘’를 도산서당 뒤에 세우기로 한 결의였다.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선조 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선조 8년 여름에 서원의 규모를 완성하고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으며, 상덕사에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고 석채례를 행함으로써 선조 9년 2월 13일 도산서원이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도산서원의 원규를 비롯한 운영원칙과 교육활동은 다른 서원에서 준용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 도산서원은 수백년 동안 한국 성리학의 요람이자 서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2. 서원교육의 현대적 복원, 선비문화수련원

1) 선비문화수련원 현황

선비문화수련원은 2001년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부설 교육기관 설립을 결의함으로써 출범해 2002년부터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을 부설기관으로

7) 정만조,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142쪽.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퇴계 이황 탄신 500주년 행사를 끝낸 1개월 후인 2001년 11월이었다. 퇴계 선생 탄신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당시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은 크게 나아진 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 의식 있는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창달할 사회윤리 실천의 주체를 양성해 도덕입국에 기여하고자” 안동권 유림들의 힘을 모아 선비문화수련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비를 기르는 교육기능인 양사(養士)와 선현을 기리고 받드는 존현(尊賢)의 기능을 수행하던 도산서원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서원 고유의 교육기능을 회복하려는 염원의 발로였다.

그러한 취지로 설립된 선비문화수련원은 재원과 시설 그리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퇴계 문중에서 쾌척한 1억 원이 종자돈이 되어 출범한 수련원은 이듬해부터 수련이 시작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강연료, 중식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운영경비 외에도 초기 수련원의 시설확보 역시 어려운 과제였다. 그래서 도산서원에서는 입교식, 알묘례 등 전통체험 행사만 치르고, 주된 수련과 숙식은 인근의 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박시설에서 주로 해결했다.

이후 수련생이 늘어나면서 한국국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연수시설인 국학문화회관을 임차해 사용하다, 2011년 4월에 이르러서야 퇴계종택 뒤 5,390㎡(1,630평)의 부지에 연건평 면적 2,067㎡(625평)의 원사가 준공됨으로써 첨단 강의실과 숙소를 갖추고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기 수련원 운영을 맡았던 원장이하 임직원들은 여직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의 자원 봉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공직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으로, 선비정신의 시대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이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운영예산과 열악한 연수시설에도 불구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들의 헌신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선비문화수련원은 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체계는 원장 아래 수련본부와 행정본부의 양부가 중심부서로서 연수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부설기관으로 전통예절교육원이 있다. 수련본부 산하에는 수련1,2실과 지도위원실이 있어 원내외에서 행해지는 수련업무를 맡고 있다. 수련1실은 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유림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운영업무와 지자체 등 외부 기관의 위탁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수련 2실은 군인, 공무원, 기업, 일반인 등 대상의 수련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도위원실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수초기 교장, 교육장 등 교직에서 은퇴후 자원봉사로 연수업무에 헌신하며 초석을 놓은 20명의 지도위원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련활동 지도 및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행정본부 산하의

[노정환]이수리원 조영노



야외 교육장으로는 선비문화수련원의 본원이랄 수 있는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및 퇴계명상길, 그리고 퇴계기념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멀지않은 곳에 있는 퇴계의 묘소와 이육사 문학관, 하계마을의 독립운동기념비가 중요한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박물관과 서후에 소재한 학봉종택도 수련과정에서 방문학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8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국내학술대회

2) 그간의 성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해 운영되어 왔지만 선비문화수련원은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수련원 발전의 단적인 지표는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수련생의 숫자이다. 2002년 수련을 실시한 이후 초기 3년간의 수련생 수는 매년 몇 백 명 수준에 머무르다 1,030명이 다녀간 2005년부터 매년 약 천 명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6,245명에 이르렀다. 이후 수련생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 12,312명, 2011년 13,389명, 2012년 20,438명에 이르렀고 지난 2013년에는 35,564명이 다녀갔다.⁸⁾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2014년에는 45,000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의 예약상황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 40%이상의 수련생 증가가 예상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참여 계층이나 직종에 있어서도 많은 확대발전이 있었다. 2008년까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세 교육의 당사자들이 대부분이고, 인근 지역의 공직자, 군인 등의 일반인과 단체가 가끔 참여하는 형편이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유수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사기업과, 공직자 등으로 대상 계층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녀간 수련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조사한 수련만족도 결과를 보면, 교육내용, 강의 내용·수준·방법, 선비문화 관련 유용한 경험과 기회부여, 현장교육에 대한 예상 기여도 등의 전체 항목에 걸쳐 최소 82%에서 90%에 이르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대상별 만족도 2013〉

교육 대상	만 족 도
교 원	96.9%
공 무 원	92.7%
기 업 인	88.9%
일 반 인	95.1%
대 학 생	77.5%
초등학생	80.2%
중 학 생	66.2%
고등학생	76%

〈교육내용별 만족도 2010~2012〉

교육 내용	만 족 도
선비문화 체험의 가치	87.6%
수련기관 직원들의 관심도와 자세	87.4%
교육과목의 짜임새와 내용	82.3%
교육 시설	90.8%
강의내용과 수준 및 방법	88.0%
현장교육에 대한 예상기여도	90.6%

8) 수련원이 개원한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수련에 참여한 총 인원은 98,971명에 이른다(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2014년도 정기이사회·총회'자료)

이러한 수치를 연수가 본궤도에 오르던 2009년의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아직 연수전용 원사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시설에서 연수가 행해졌고, 대상 계층도 주로 인근 지역의 교원 및 공무원 중심이던 당시의 만족도 조사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및 행정공무원의 연수만족도 2003~2008〉

	교육내용 만족도	강의내용·수준방법 만족도	선비문화 경험 만족도	현장 예상기여도 만족도	수련기관의 관심과 수련요원 자세 만족도	수련기관의 환경과 편의시설 만족도
교 원	91.0%	87.6%	93.5%	88.6%	97.6%	58.2%
공무원	87.5%	89.3%	95.6%	87.5%	97.4%	64.3%

당시는 표에서 볼 수 있듯, 교원과 행정공무원 모두 수련환경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전 항목에 걸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비문화 경험과 수련기관의 관심 및 요원들의 자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련기관의 관심과 수련요원의 자세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시 선비문화수련원은 사무를 전담하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직에서 은퇴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임직원들이 전용 연수공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연수생들을 오직 사명감 하나로 열의를 가지고 응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수련 참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련생을 맞이하고 연수를 꾸려갔던 이들의 사명감과 열성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전용 연수 시설이 없어서 퇴계 종택 근처의 민박시설을 이용하다가 이후 국학진흥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은 수련기관의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0% 전후로 나타나게 했을 것이다.⁹⁾

선비문화수련원의 연수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09년 당시 선비문화수련원을 이끌고 있던 김병일 이사장은 앞에서 인용한 발표자료에서 그간의 수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련 시설의 개선, 교육내용 및 강의방법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 수련원의 관심 및 수련업무 담당자의 자세, 수련참여 계층의 다양화 확대 등 대상의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었다.¹⁰⁾ 당시 제기된 개선과제는 대부분 구상과 계획대로 실현되었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9) 김병일, 「선비정신의 현대적 계승」(남명학연구원 2009년 학술대회 자료집 『선비정신과 공직자의 윤리』, 2009. 9) 17쪽~18쪽.

10) 앞의 자료 「선비정신의 현대적 계승」에서 김병일 이사장은 1)여타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는 60% 내외의 연수환경 관련 만족도와 관련해, 정신과 뜻을 중시했던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는 해도 열악한 연수환경에 무조건 적응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우선은 임차를 해서 쾌적한 시설을 사용하고 이후 자체 연수시설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계획대로 2011년의 원사건립으로 1차 해결되었고 현재 더욱 늘어나는 연수생을 맞기 위해 2015년 완공예정인 제2원사 건립 공정이 진행중이다. 2)교육내용 및 강의 방법의 지속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수련 이후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과제를 실행할 결의와 다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했는데, 이는 퇴계종택 등 인근의 현장을 활용한 체험교육의 확대와 분임토의와 발표로 구체화 되었다. 3)수련기관의 관심 및 수련요원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수련자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들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해 나아가되 자원봉사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4)수련대상의 다양화 및 확대방안과 관련해 종래의 학생과 교사 및 인근지역의 공무원, 군인, 학부모 등을 주 대상으로 하던 데에서 기업체 대상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수련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가고 있다.

것이 인적 역량임을 감안해 조직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장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각계 여론 주도층들의 솔선수범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수의 확대를 추진해 결실을 거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선비문화수련원의 교육과정

선비문화수련원의 교과과정은 대상의 연령과 계층·직종 등에 따른 차별적 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현장 방문 교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저학년용 교재인 『선비정신을 찾아서』와 고학년용 교재인 『선비정신의 향기』가 각기 지난해 편찬되어 현장과 입소 교육에서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종의 교재는 ‘선비정신의 가르침’·‘훌륭하신 선비를 찾아서’·‘사자소학의 지혜’·‘인의예지와 바른 인성’·‘퇴계선생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된 「지혜편」과 ‘인사예절 실습’·‘어린이 활인심방’·‘정심투호’ 등으로 구성된 「정심편」, ‘제기차기’·‘윷놀이’로 구성된 「놀이편」 등 3개의 장으로 목차는 동일하되 고학년과 저학년의 학습역량을 감안한 내용 기술상의 난이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방문교육은 일선 초등학교의 교실을 찾아가 앞서 소개한 교재에 의거해 오전 학과 4시간에 걸쳐 선비정신과 퇴계선생의 가르침, 인사예절, 투호놀이(활인심방체험) 등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일 입소과정은 교재를 활용한 강의실에서의 선비정신 이해 교육과 도산서원 방문 알묘와 참관 및 퇴계종택과 이육사문학관 방문 등의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1일, 1박2일, 2박3일 등의 수련과정이 있는데, 1일 과정에서의 수련원의 강의실을 활용한 선비정신에 관한 강의와 도산서원, 퇴계종택, 이육사문학관 참관을 기본교육으로 하고, 과정일수에 따라 활인심방 등의 체험교육, 유교문화박물관, 독립운동기적비, 퇴계묘소 등의 현장교육, 그리고 분임토의 등이 선택적으로 보태진다.

성인교육 역시 과정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장의 강의(‘선비정신의 현대적 조명’)과 이사장의 강의(‘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에 이어 퇴계명상길 걷기, 도산서원탐방 및 서원의례(알묘례) 체험, 퇴계종택 방문, 분임토의 및 팀 발표, 퇴계시공원, 퇴계묘소,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 이육사문학관 참관 등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이론 강의는 최소화하고 선비정신의 체화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장체험을 중시한다. 현장체험은 유적지 탐방과 종택방문으로 이루어진다. 퇴계 묘소와 하계마을의 독립운동기적비, 유교문화박물관, 이육사문학관 등이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이 현장체험은 옛 선비들의 자취를 찾아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뜻을 몸으로 배우는 한편, 오늘날 계승해 살아가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비정신을 체득하는 현장수업이다. 이는 유교문화와 퇴계정신의 자취가 그 어느 곳 보다 오롯이 남아있는 주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저녁에 자율적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이전의 다양한 수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선비정신을 내면화하고 연수 후 일상 속에서의 실천과제를 정하며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전체 수련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김병일 이사장이 오랜 시간 공직에서 인생을 먼저 살아간 경륜과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한 경험을 살려 가능한 모든 연수생들의 토의에 직접 참여해 조언과 지도를 하면서 내실 있는 분임토의가 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분임토의는 우선 선비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목표에 해당하는 대주제와 그것을 위한 실천과제인 소주제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들 주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지양하고 반드시 선비정신의 일상적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게 한다. 그래야만 연수 후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실천가능하기 때문이다.¹¹⁾ 많은 수련팀들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선비정신의 실천 가치에 대한 몰입현상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몰입도는 수련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는 자료로 엮어져 복사 배포되는데, 이 자료는 다음날 발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수 이후 자신들이 선정한 과제의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분임토의의 결과는 다음날 분임 대표의 실천과제 발표를 통해 전체 수련 참가자들이 공유하며, 토론 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근 몇 년 사이 수련과정의 순서에 변화가 있었고 정해진 연수 일자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선비문화수련원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해 본 수련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서울서 아침 일찍 출발해 입소한 수련생들은 입교식에 이은 김종길 원장의 ‘선비정신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후 점심식사를 하고 도산서원을 찾아 참관하고서 제유사의 망기望記를 받고 제복을 갖추어 입은 후 상덕사에 알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다.

이어서 퇴계종택으로 이동해 ‘종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 종택에서는 84세인 퇴계의 16대 종손이 직접 수련생들을 맞이해 무릎을 꿇은 채 몸에 밴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나눈 후 손수 쓰고 낙관을 한 ‘오도제세吾道濟世(선인들이 물려준 가르침으로 세상을 구제한다)’글씨를 선물로 주는데, 수련생들에게는 종손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것보다 마음에 새길 값진 선물이다.¹²⁾

이어서 수련원 강의실로 들어와 김병일 이사장이 ‘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진행

11) 예컨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지향과제로 정했다면 실천과제는 정해진 날에 용돈 드리기,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 드리기, 한 달에 한번 찾아뵙기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12) 퇴계 종손은 매년 수련생을 포함한 종택 방문객을 위해 3만점에 이르는 붓글씨를 직접 쓰는데, 2012년의 주제는 ‘예인조복譽人造福(남을 칭찬함으로써 내 복을 짓는다)’이었고, 2013년의 주제는 ‘사해춘택四海春臺(온 세상에 따스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라)’이었다.

하는 강의를 경청하면서, 오늘날 물질적 성취와 정신적 가치의 괴리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며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선비정신이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임을 함께 공감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분임토의를 하면서 낮에 배우고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병일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일일이 각 분임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하는 이 분임토의는 ‘공동체(조직)에 필요한 사람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4개 분임으로 나뉘어 5시간에 걸쳐 밤이 늦도록 진행되는 토의는 ‘자기성찰과 실천계획서 작성’으로 마무리 된다.

둘째날은 이른 아침 첫 과제로 활인심방活人心方 체험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퇴계 선생을 비롯한 옛 선비들 심신수련의 필수과목이기도 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종택을 나온 수련생들은 종택 앞 퇴계전 가에 있는 시비의 내용을 살펴봄에 퇴계가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매일 자신을 성찰하려 한 겸손한 자세에 감명을 받고, 종택 옆 퇴계시공원에 있는 96자의 자명自銘에서 퇴계의 성실함과 겸손함,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인간애에 감동을 한다. 이어서 퇴계의 묘소에 가서는 묘소가 소박하고 겸손한 데 놀라며 선생의 고결한 인품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이어 묘소 입구의 퇴계 후손들의 집성마을인 하계리下溪里에 들른다. 하계리에는 독립운동기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마을에서만 타 시군의 전체와 비슷한 수인 25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되었다. 조선의 선비이자 퇴계의 후예들답게 항상 의義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건위수명見危授命의 사적을 접한 수련생들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하계리에서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육사문학관에 이른다. 역시 퇴계의 14대손으로 독립운동의 최목으로 17차례나 감옥을 드나들다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와의 만남은 선비란 어떤 사람이며, 오늘날 선비정신을 배우는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게 한다. 또한 70을 넘긴 육사의 따님 이육비 여사가 보여주는 겸손한 언행과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찾아온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현장에서 돌아온 수련생들은 중식을 먹은 후 강의실에 모여 어젯밤 분임별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한 후 각자의 각오를 다진 후 수료식과 더불어 1박2일의 수련과정을 마친다.

수련을 마치고 나서는 수련생들은 대부분 낯고 형식적이라는 유교와 선비정신에 대한 편견 속에 큰 기대 없이 찾아 왔다가 새롭게 눈과 귀가 열리고 의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다. 어떤 이는 퇴계의 삶과 생각으로부터 배운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하고, 또 어떤 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육사의 선비정신을 떠올리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 등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3.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비결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연수의 중심에는 퇴계 이황이 있다. 강의실에서의 교육이든 현장에서의 답사와 체험이든 항상 퇴계의 자취와 정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련생들이 발견하고 감동받는 핵심 메시지는 교과서에서 배운 성리학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한 지역의 어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퇴계의 정신이다. 그것은 퇴계종손에게서 발견되고, 하계마을의 독립운동기록비와 이육사문학관에서 발견되며, 유교문화박물관의 기록유산 속에서도 발견된다.

선비문화수련원은 강의실과 강의실 밖의 관련 유적들을 활용한 강의와 체험을 통해 도산서원의 중심인물이자 성공한 리더였던 퇴계가 그 중심에 서 있는 전통적 가치가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조화롭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옛 선현들처럼 군자를 지향하고 성인을 따라 배우기를 추구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투철하고 일관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고 즐겁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러한 정신적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이르는 원칙이나 지침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남아있는 긍정적인 전통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유학적 가치의 핵심은 자기 욕망의 절제와 타자에 대한 공감적 배려의 仁이고, 그것은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유학적 가치의 핵심인 인仁을 그리고 그것을 체화해 드러낸 퇴계의 경敬의 마음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에서 소중한 가치이다.

원래 유학의 진리는 고원한 것이 아니라 비근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 가치의 현재화와 일상화이다. 그것은 전통적 가치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실천덕목으로 재해석하고 일상사 가운데 실제적인 행동 규범으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 가치의 일상적 실천덕목화란 유학적 가치의 핵심인 仁을 우리들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의 실천원리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퇴계언행록』 도처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퇴계의 모습이다.

여러 학생들과 상대할 때에 마치 존귀한 손님이 좌석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화기¹³⁾和氣가 훈훈하고 강의가 다정하고 친절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환히 통달해서 의심나거나 불분명한 것이 없었다.¹⁴⁾

선생은 21세에 부인 허씨¹⁵⁾를 맞아서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였다.¹⁶⁾

13) 『退溪言行錄·起居語默之節』

14) 『退溪言行錄·律身』

“형제간에 잘못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주어도 됩니까?”라고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우선 나의 성의를 다하여 상대방을 감동하도록 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서로간의 의리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서로 간에 성의로 부합함이 없이 대뜸 직설적인 말로 나무란다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고 하셨다.¹⁵⁾

여기서 인용한 것은 일상의 수많은 관계 중에서 제자·부인·형제를 향한 퇴계의 태도와 처신이지만, 그 외에도 아버지·친척·이웃은 물론이고 집안의 노복이나 아랫사람 등에 관한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다양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보여준 퇴계의 모습에 일관된 것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만나는 대상에 대해 베푸는 인애仁愛의 마음이다이다. 그러한 마음에 바탕한 퇴계의 태도는 그와 만나는 모든 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러한 베품을 받은 상대의 마음은 다시 퇴계를 바라보는 존경의 시선과 몸짓으로 돌아와 퇴계를 행복하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유학이 추구하는 개인적 행복과 이상적 사회 실현의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사회 전체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지혜이다. 탈것과 먹는 음식, 입는 옷, 자는 집 등 생활의 조건과 환경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과 그러한 감정의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활동 영역은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 지역, 국가, 세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다종다기한 직업과 직종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현대인의 일상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와 아버지로서 자녀와, 가게 주인으로서 고객과, 이웃으로서 이웃과... 등등 처한 영역과 직종에 따라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행복은 내가 짓는 내면적 자족과 충만에서 기인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존중 등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마음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절반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실망, 불쾌함, 고통, 분노 등으로 인한 불행감은 상대가 나에게 보이는 무관심과 무시, 배척, 멸시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대인접물待人接物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행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늘리는 길은 자명하다. 일상의 관계 속 상대에 대해 진심어린 인애仁愛의 마음과 태도로써 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은 공자의 말과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끼치지 않는다”¹⁶⁾ 것에서 출발한다. 유학은 원래 거창하고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실행함으로써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유학에서 흔히 강조하는 ‘일용사물지도日用事物之道’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道)는 높고 먼 곳에

15) 『退溪言行錄·居家』

16) 『論語·顏淵』, “己所不欲, 勿施於人.”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를 “도道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道가 아니다”¹⁷⁾고 설명했는데, 그 의미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유학이 말하는 진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공자나 퇴계가 다시 지금 여기에 오더라도 묻고 추구할 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 유교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미를 묻고 그를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일상의 실천에서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여러 비결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퇴계라는 걸출한 롤 모델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퇴계는 이미 500년도 더 지난 16세기라는 과거의 인물이다. 그럼에도 퇴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저작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고 그가 강학하던 도산서당이 오늘에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올바른 사람의 도리 따스한 사람의 마음,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그의 후학과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나타났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위기에는 의롭고 희생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 뜻을 따르면서 배려와 겸손의 마음과 헌신의 삶으로써 만나는 이 누구에게나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생들이 한결 같이 인상 깊은 감동의 만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퇴계 종손과의 대화, 이옥비 여사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은 이곳에 있는 그분들의 존재이다.

선비문화수련원에는 40명의 임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이사장과 원장 그리고 평직원의 차이가 있고, 연수기획·행정지원·연수운영과 지도 등 각기 맡은 일은 다르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겸손한 태도와 온화하고 친절함 응대로 수련생들을 맞이하고 안내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주역들이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일정을 밤낮으로 같이하는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수련요원들의 마음가짐과 일거수일투족의 몸짓은 수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다양한 직군의 수련생 8,0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친절도 조사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또 하나의 성공비결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를 보면, 대개 반나절의 단체단위 현장교육 및 당일과정이 주를 이루는 초·중·고등생이나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에 부정적 편견을 지니기 쉬운 연령층인 대학생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친절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90.6%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수련기관요원의 친절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17) 『中庸』,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직군별 수련기관요원 친절도_2013 (선비문화수련원 제공)

항 목	교 원	기 업	공무원	일반인	대학생	초중등학생	전 체
응답백분율(%) (수련기관요원 친절도)	98.2	95.0	97.2	99.5	79.8	73.9	90.6
설문인원(명)	704	3,528	495	421	336	2,595	8,079
비 중(%)	8.7	43.7	6.1	5.2	4.2	32.1	

‘수련기관요원’에는 이사장과 원장은 물론이고 현장을 함께 하는 젊은 연수요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강의교육이든 야외 현장교육이든 선비문화수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퇴계의 삶의 자취와 만나고 그러한 뜻을 이어 살아가는 퇴계종손과 이옥비 여사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과 뜻에 가장 깊이 훈습된 이들이다. 그러한 훈습된 좋은 마음이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져다 주고, 연수생들을 향해서는 친절하고 겸손한 응대로 드러나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공자가 말한 “아는 데서 나아가 좋아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더 나아가 즐거워하는 데 까지 이른다” 결과이다. 이들은 선비문화수련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러한 일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퇴계종손이 강조하는 ‘예인조복響人造福’의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들 ‘수련기관요원’을 가진 것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다.

4. 서원문화 계승의 방향과 과제

과거 서원은 세속적 욕망의 추구를 위한 학문이 아닌 덕성의 함양을 통한 인격적 자아의 완성을 지향한 유학의 교육관을 가장 잘 체현한 사학 교육기관으로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인격적 감화와 지식의 전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인격의 완성은 물론이고 그러한 인격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는 지식인으로서의 선비를 길러내는 요람이었다.

선비의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남(出處)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상에 도도가 있으면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에 도가 사라지면 물러나 몸을 닦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대의 치란治亂을 막론하고 현실에 뛰어들거나 물러나 은거하는 등 각기 선택은 다양했지만, 제대로 된 선비라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했다. 현실에 뛰어든 선비들은 잘못된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경륜과 능력을 발휘했고, 물러나 은거한 선비들은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올곧은 삶의 모습을 지킴으로써 세속에서 횡행하는 불의와 이익을 좇는 기풍을 비판하고 삶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조선이라는 전통사회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그 문화의 깊이를 더해갔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선비들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뒤로하고 대의를 앞세웠고, 도덕적 용기에 근거해 불의에 항거했으며, 때로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이들 조선 선비들이 이념과 지향으로 세워진 것이 서원이고, 또 서원은 그러한 선비들을 낳았으며, 그러한 의미 있는 공간이 우리 곁에 도처에 남아있다. 따라서 서원은 예전의 선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의 우리의 노력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당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제시하는 감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사찰의 일반 대중과의 만남의 공간화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많은 불교 사찰은 신자들의 신앙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 방문과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고, 나아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 감성과 이성적 태도와 가치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현재적 삶과 소통함으로써, 전통이되 지나간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적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서원도 그래야 한다.

가치, 감성, 태도 등을 포괄하는 우리의 전인적 삶과 유리된 전통, 사람이 소외된 전통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박물관의 유물들도 단순한 과거가 화석화된 사물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 우리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공간인 서원은 우리들과 소통하면서 형식은 달리한다 해도 예전 선인들이 지향했고 오늘날 필요로 하는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에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서원의 사회교육적 기능의 강화를 의미한다. 사회교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거 서원이 행했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풍속을 선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사회를 선하게 했던 교화가 다름 아닌 사회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형식을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은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서원은 고립에서 벗어나 과거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자신을 단장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현재 봄가을 두 차례 향사하는 제향중심에 그치고 겨우 낡고 허물어지는 것을 고쳐 보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원은 학생, 일반,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감성적 체험과 지식 습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학술대회든 단체 모임을 통해서든 병산서원에 다녀간 이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한다. 매미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여름 한낮 입교당에서의 독서와 달뜨는 밤 만대루에서 목도한 강과 산 그리고 하늘이 빛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세상의 먼지 속에서 분주히 이욕 혹은 명예를 쫓느라, 혹은 고단한 살림살이에 지쳐 자신을 잊고 살다가 서원에서의 짧은 체험이 어렴풋이나마 자신의 본모습을 보고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체험의 기회가 많아져서 서원을 다녀가는 이들이 세상살이에 비틀대는 삶을 다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아니라면,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느끼는 소쇄함과 평온함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도산서원의 사례에서처럼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써 배움과 깨달음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면 서원이 옛날에서 오늘로 건너와야 하고, 먼지 쌓인 침묵의 은둔에서 털고 세상 속으로 나서야 한다.

• 제5주제 •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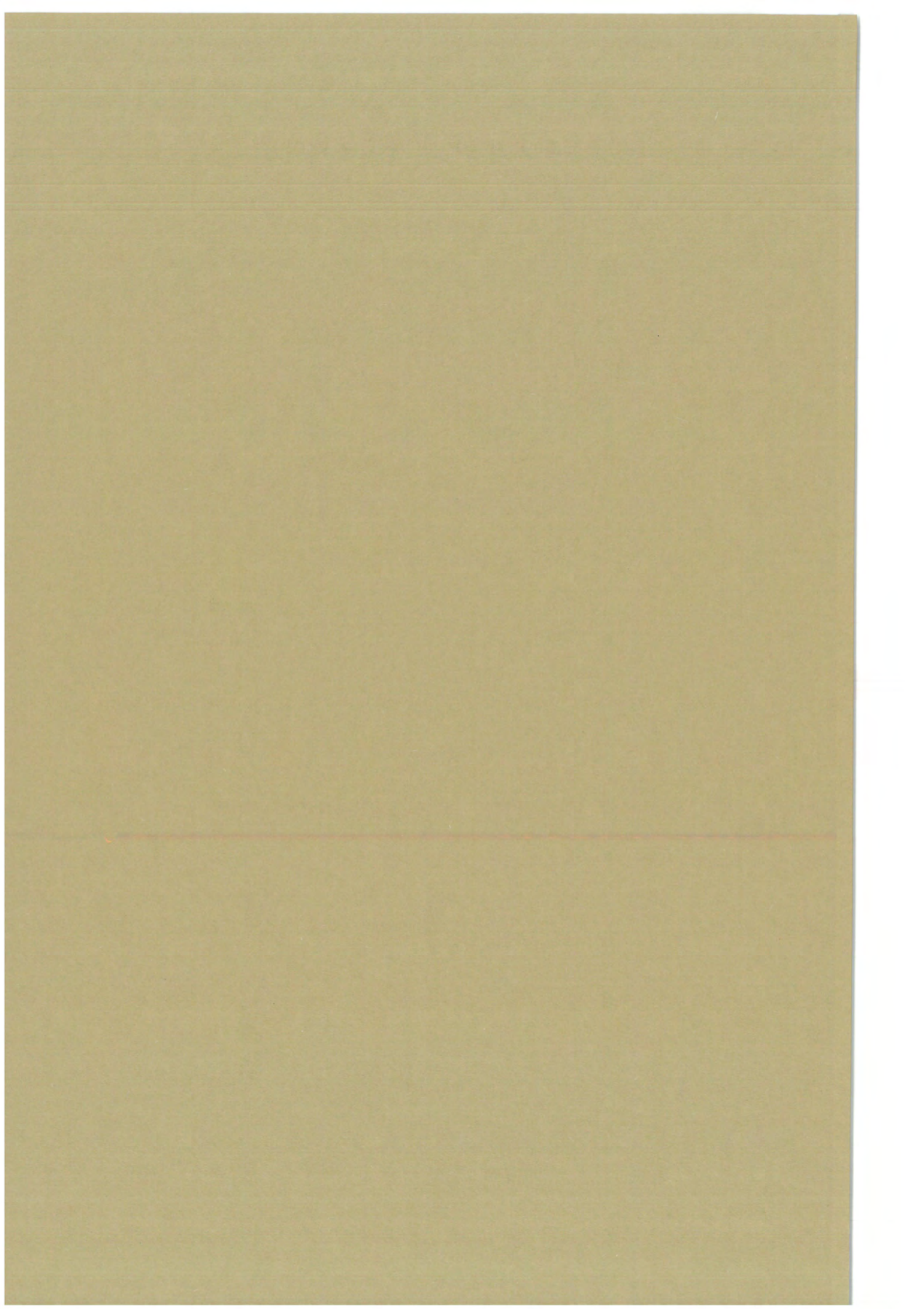
전 병 길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전 병 길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최근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의해 집계가 시작된 2004년을 기점으로 36,902(3,207)명, 2005년 52,549(6,617)명, 2006년 70,914(9,497)명, 2007년 81,652(13,533)명, 2008년 112,800(20,106)명, 2009년 140,893 (19,399)명, 2010년 172,954(20,045)명, 2011년 212,487(24,550)명으로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170,392(23,752)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내부자료)¹⁾. 템플스테이 참가자 예측에 관한 보고에서도 2015년에 내국인 292,088명과 외국인 39,785명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템플스테이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결과는 템플스테이의 문화관광자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령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템플스테이는 관광 가치, 교육 가치, 정신건강 가치, 사회소통 가치, 그리고 복지 가치 등 사회, 문화, 경제를 포함한 전반에 순기능을 갖는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1. 템플스테이 개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11개 지역 총 33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한시적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월드컵 이후 지속적인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화장실, 샤워시설 등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02년 아시안 게임 등 후속 국제 행사기간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한국의 이색적이고 독특한 전통 사찰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

1) 괄호안의 숫자는 외국인 참가자 인원수. 2012년 참가자 수 감소는 집계방식 변화로 인한. 템플스테이 지정 및 운영규정(2012. 1. 17. 제정공포)에 따라 참가자 집계방식이 2시간 이내의 사찰체험자 및 산사축제 참가자를 제외함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음.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은 템플스테이를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기업연수프로그램, 일부 대학 교과목 선정 등을 통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템플스테이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에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조직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축함으로써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템플스테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사찰의 노력이 결합되어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전통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서구인의 동양불교문화 관심 증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중앙정부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국가 관광산업으로 템플스테이 활성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템플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시설비 지원으로 전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찰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재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숙박공간, 프로그램 운영공간, 화장실 및 세면실 등 수용력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수용태세의 개선은 자칫 불교문화 및 한국전통문화를 보유하는데 그칠 수 있는 사찰의 문화를 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근원이 되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전국 33개 운영사찰을 필두로, 2008년 87개 사찰, 2012년 기준 109개 사찰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한편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관광으로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및 체험관광 등으로의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얻을 수 있는 심신의 휴식과 정신적 활동인 참선수행 등 심신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적 불교문화 및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광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OECD로부터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선정(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OECD, 2009))되는 등 한국의 대표 관광사업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정신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의 가치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사회전반의 물질만능주의 만연, 선대로부터 계승되어온 전통적 가치 및 윤리관의 파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위협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외와 정신적 빈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다양한 사회병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는 전전한 개인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축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정체성 구현은 물론 사

회자본을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향후 템플스테이는 국민의 관광여가 욕구 증대, 삶의 질 향상 욕구,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 현대인의 여가문화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여가관광 프로그램으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 심신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 및 심신 건강형 여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바, 그 중심에는 심신 치유에 대한 현대인의 희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동양 정신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과 더불어 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 지역에서까지 불기 시작한 한류 바람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 관광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고, 한국의 유명 관광지 뿐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그 진수를 보존하고 있는 불교문화를 한국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템플스테이의 정의

템플스테이를 정의하는데 있어 템플스테이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 현재의 운영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선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한국의 전통사찰은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의 가치로 인해 관광의 대상이 되어 왔다(손대현, 2000). 일반인들은 종교적 서원, 심신의 수련, 사찰문화유적 탐방 등의 목적으로 전통불교사찰을 찾고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중들은 전통사찰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가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의 기능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종교수행 기능으로써 종교적 수행과 포교라는 본래의 기능이며, 둘째 역사문화 보전기능으로 사찰건축과 사찰 내에 소장된 역사·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적 유산가치(heritage value)를 창출하며, 셋째 생태환경보존기능으로 산중사찰은 임상을 양호하게 보존함으로써 산의 건전한 산림생태가치(ecological value)를 창출하고, 넷째 관광휴양자원기능으로 전통사찰의 자연성과 역사문화성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이호길, 한동기, 2009).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한다, 조용한 절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사찰은 산사라는 입지와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에게 심신의 수련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근래 들어 일상의 각박함을 달래려는 도시인들에게 전통적인 산중사찰은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상당수의 산중사찰에서는 심신의 휴식에 대한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에서의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전통사찰에서의 휴식은 방문자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을 수련하는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목적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템플스테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9). 템플스테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지니는 산림생태환경과 관광휴양자원으로의 가치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개방적인 자세에서 여가활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템플스테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혜택이며, 이는 템플스테이가 일상에서 지친 참가자들에게 심신의 안정 및 재충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약하면 산림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는 휴식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인들의 여가관광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기준 정부지정 문화재 8,840점 중 불교문화재가 총 3,144점, 그 가운데 국보나 보물 총 1,776점 중 1,129점이 불교문화재로 보고되고 있으며(이호길, 한동기, 2009),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전통사찰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불, 참선, 108배, 다도, 발우공양 등 불교의식 및 불교의례 등 무형적인 전통불교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전통사찰들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즉 전통사찰은 문화유산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템플스테이를 문화유산관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인간의 문화적 행위 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과 같은 유형 문화유산과 전통적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식, 민속, 예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으로 나뉘며,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지선, 이훈, 2010). 문화유산관광의 관점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유, 무형의 불교문화유산, 즉 불교철학, 사찰생활방식, 불교의식 및 의례, 건축물, 유적 등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문화유산관광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잊어져 가는 현실에서 내국인들에게 있어서도 템플스테이는 훌륭한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된다.

그러나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탐닉하는 방법으로 ‘숙박을 통한 사찰생활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여가나 관광을 목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을 잠시 들러 개인의 서원, 사찰 경내의 유적물(지)관람, 자연과 더불어 짧은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문형태들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순관광(sightseeing)을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방문형태로 본다면, 이에 비해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찰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적극적 형태의 방문체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라이프'와도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개천(2005)은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이상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산사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한 바 있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경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찰의 종합문화생활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김철원, 윤혜진, 2008: 131).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벽 예불에서 저녁공양에 이르는 스님들의 일상을 따라 함으로써 참가자 스스로가 전통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각종 수행 및 생활방식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목적에도 템플스테이를 '불교문화체험'으로 명시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9).

한편 종교관광의 관점에서 사찰관광이라는 용어들이 소개된 바 있다(이항구, 1988; 이호길, 한동기, 2009). 사찰관광을 종교의 교육적 기능, 건문화대 및 교양적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 관광의 형태(이항구, 1988)로 보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 동기나 순례의 목적 이외에 문화휴양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것을 사찰에 대한 종교관광의 매력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종교관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지순례지 방문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성지순례관광은 종교적 의무 또는 신앙 고취의 목적으로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이며(이병원, 2009), 성지순례 참가자들의 주된 동기는 종교적인 의무수행, 신앙회복, 개인적인 희망 및 서원의 실천, 성전 및 건축물을 보기 위함 등(Cohen, 1992; Hudman, 1992; Pfaffenberger, 1983)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종교관광 및 성지순례관광의 동기는 종교적 동기를 중심으로 순례지역의 역사나 문화, 건축물 등을 탐닉하려는 동기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를 종교관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동기 측면에서 템플스테이는 종교관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불교도인들이 전체 참가자의 절반을 밀도는 수준이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2010). 이는 템플스테이의 주된 참가동기가 종교적 측면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템플스테이의 주된 참가동기로 수행 및 자아성찰의 기회 등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심신의 재충전 및 문화체험 등의 문화휴양적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따라서 템플스테이는 종교관광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자연환경과 전통불교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전통사찰에서 숙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는 내, 외국인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여가/관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산사에서의 생활체험은 삶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자연과의 교감,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탐닉, 정신적 수양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와 심신의 안식처를 제공한다(정윤조, 전병길, 2009).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템플스테이를 '숙박을 통한 불교문화(유산) 생활체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템플스테이 체험: 여가관광욕구에 대한 보상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체험하는 것일까? 최근 정운조와 전병길(2009)은 여가관광체험으로서의 템플스테이체험을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으로 구분하고,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교육체험, 휴식체험, 대인교류감 등 이 이완이나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체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의 체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더불어 템플스테이 체험의 효과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였다(전병길, 정운조, 2011). 두 연구를 토대로 템플스테이는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대한 생활체험으로 도전감, 유능감, 신체적 역동감, 모험감, 성취감 등 전형적인 서구식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체험과는 달리 한국적인 자연환경과 전통불교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적 자연관(자연교감 및 자연동화감), 심신의 이완, 자기성찰, 정신문화적 풍요로움 등 정(靜)적인 체험을 제공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전통사찰들은 산사(山寺)로써 대부분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번잡한 도시생활을 떠나 산사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의 교류 기회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자연에 대한 존엄을 느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과 자연이 하나 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스키, 등산, 암벽타기 등 활동지향적인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연정복감과 같은 서구식 자연관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서구식 자연관에서 나타나는 자연정복감이나 경외감 등은 자연을 정복 및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템플스테이에서 나타나는 불교적 자연관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과 심리적인 안식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템플스테이 체험의 또 다른 매력은 현대인들의 실존적 의미 추구차원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불, 참선, 108참회, 명상 등의 프로그램은 일상의 번뇌와의 단절과 전통적인 수행의례에 대한 직접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 발견이나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참선수행을 통해 고요한 사유와 종교적 명상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찾아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가경험의 정신적 순기능은 여가관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해서도 강조되어왔다. 가령 일찍이 자아탐색 및 평가(exploration and evaluation of self),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자아인식(self-perception), 깨달음(enlightenment), 변화(change) 등 여가관광활동과 관련한 자기성장의 개념들이 논의된 바 있다(Arnould & Price, 1993; Crompton, 1979; Csikszentmihalyi & Kleiber, 1991; Schmidt & Little, 2007).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자기성장체험이 템플스테이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전병길·정윤조(2011)의 연구는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이 반성, 회고, 자기한계의 인식, 깨달음, 자기성찰, 자기갱신,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자기성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전통불교문화의 유형, 무형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적 속성은 문화적 측면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Crompton, 1979). 실제로 템플스테이 기간 불교의례 및 사찰생활, 불교문화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불교정신문화에 대한 지식 확충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적 욕구충족 혹은 지식 획득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병길, 정윤조, 2011). 여가관광활동이 지적 욕구 충족과 지식 획득의 장(場)을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논의(Beard & Ragheb, 1980)가 템플스테이 장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불교의례 및 사찰생활은 불교적 자연관과 절제된 생활 태도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발우공양은 참가자들에게 절제된 식습관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각인시킨다. 즉 여가활동이 지니는 학습의 효과가 템플스테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님 또한 참가자의 교육체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참가자들은 스님과의 교류(e.g. 개인적 대화, 다담(茶談))를 통해서도 깨달음은 물론 새로운 불교문화지식 등을 얻는다(전병길, 정윤조, 2011).

일반적으로 여가동기는 크게 자기개발 및 자기향상동기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의 두 가지 동기로 나눌 수 있다(채선애·한성열, 2002). 특히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동기는 여가관광활동의 주요동기로 알려져 왔으며, 이미 일상도피, 심신의 안정감, 휴식, 스트레스 해소, 이완 등은 여가관광활동의 핵심적인 체험임이 확인되어왔다(Beard & Ragheb, 1983; Ross & Iso-Ahola, 1991).

자기성장체험과는 구분되는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매력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템플스테이는 자기개발 및 자기향상동기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의 두 가지 여가동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은 산사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각박한 도심 생활과 일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어,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얻게 된다(전병길·정윤조, 2011). 같은 맥락에서 정윤조·전병길(2009)의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이완(relaxation)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을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체험은 참가자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또한 운영주체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주된 참가동기가 일상 탈출 및 휴식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2010), 실제로 일부 사찰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4. 템플스테이 체험의 효과

전병길과 정윤조(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 개인의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관광활동의 단기효과가 누적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가정(성영신 등, 1996)을 고려한다면 템플스테이는 궁극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정서적 역량 함양

자연과의 교감, 불교의식 및 생활, 다양한 이벤트(e.g. 탑돌이, 칭찬하기 등) 참여,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서적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평소 개인이 안고 있었던 갈등, 불안, 우울 등 부정적정서를 극복하게 되고 나아가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정적 정서의 충전과 스트레스 해소로부터의 정신적 회복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기성찰이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성장 체험은 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을 이끌게 된다. 사찰경내·외의 자연적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얻게 되는 자연동화 체험과 휴식체험도 직접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화와 안녕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의 함양을 이끄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적 역량 및 인지적 역량 함양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은 참가자의 삶의 태도 변화,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이타심 증진 등 사회관계 유지 및 강화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참가자 개인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령 칭찬하기나 공동체프로그램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대인관계의 기술 향상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통해 개인의 사회화를 함양시킨 것으로 보이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대인관계 기술과 대인 유대감 형성을 위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템플스테이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자기인식, 자신감, 자기존중감, 자아향상감 증진 등 인지적 역량의 함양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참가자들은 108배, 108 염주 꿰기와 같은 수행, 그리고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 이외에 자기유능감, 자신감, 자기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자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5. 템플스테이 사업 활성화 동력

1)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업단과 운영사찰들의 개별적인 운영활동 및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 하고 있다.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운영사찰들의 운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운영사찰 지원예산을 성과중심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운영사찰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시켜 템플스테이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템플스테이 운영 품질을 향상시키고 참가자들의 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방법인 운영사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별 운영사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운영사찰 모니터링은 운영사찰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사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운영사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사찰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운영사찰을 지원하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 그리고 열린 사찰 실현을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의 기본정신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와 대중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 핵심 프로그램(예: 발우공양, 예불, 참회정진, 참선, 간경, 사찰안내, 울력, 다도, 포행, 사경과 사불, 탁본, 다담, 인경, 108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 체험, 교육체험, 휴식체험 등 템플스테이 고유의 체험요소와 내용을 반영하여 참가자의 체험만족도 및 애호도 제고,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한 사회통합지향 프로그램(횡성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치악산 구룡사, 2008),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템플스테이(월정사, 2010)), 지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고려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전통문화 프로그램의 예로 골굴사의 선무도, 전등사의 한지공예와 단청, 백담사의 ‘님의 침묵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등), 지역관광여건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충청남도의 템플스테이 플러스원(+1) 투어, 화엄사는 2012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대중문화 연계 프로그램(장육사의 캠핑 템플스테이, 마곡사의 한류스타 김민종과 함께, 월정사의 산사음악회, 백담사의 도종환 시인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등)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신륵사와 내소사의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 장육사의 비만해소 프로그램, 용문사와 화엄사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범홍사와 월정사의 군 장병 심신수련 프로그램, 기업 및 단체

연수 프로그램, 수도사의 슬로푸드 및 치유식(사찰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 등을 통해 특화되고 융합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휴먼웨어 역량 강화

템플스테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의 열쇠는 운영주체의 인적 역량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채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급여체계 및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등 기본 직무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직무 수행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템플스테이 운영자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현재 운영사찰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사찰별 전문/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템플스테이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기관 설립은 불교문화사업단 내에 두고, 대학 연계 또는 지역 연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4) 지자체 협력 강화

현재 지자체들은 관 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과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 관광자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여수 세계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에 템플스테이가 숙박시설로 활용되거나 문화관광자원으로 소개되었듯이 메가 이벤트와의 연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거 충청남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듯이, 타 지자체에서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단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사찰의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템플스테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진 등의 휴먼웨어나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개천(2005). “템플스테이를 위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11, 67-86.
- 김지선 · 이훈(2010). “문화유산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모형 개발.” 『관광 · 레저연구』 22(5), 479-496.
- 김철원 · 윤혜진(2008). “대안관광으로서 템플스테이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0(2), 130-148.
- 성영신 · 고동우 · 정준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 손대현(2000). “불교사찰 방문자의 만족증대 방안.” 『사회과학논집』 19, 135-158.
- 이병원(2009).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1-20.
- 이향구(1988). 『현대관광학총론』 서울: 탐구당.
- 이호길 · 한동기(2009). “사찰관광자원의 선택동기 및 이용실태 분석: 동화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4(3), 103-124.
- 전병길 · 정윤조(2011).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 후 효과에 관한 질적연구.” 『관광학연구』 35(10), 73-96.
- 정윤조 · 전병길(2009). “템플스테이체험의 여가심리학적 모형.” 『관광학연구』 33(2), 99-122.
- 채선애 · 한성열(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8(2), 17-31.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09).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0). 『템플스테이 성과분석 및 5개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3).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Arnould, E. J. and Price, L. L(1993). “River Magic: Extraordinary Experience and Extended Service Encoun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3), 24-45.
- Beard, J. G. and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eard, J. G. and Ragheb, M. G(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Cohen, E(1992). “Pilgrimages Centers Concentric and Excentric,”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33-50.
- Crompton, J. L(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Csikszentmihalyi, M., and Kleiber, D. A(1991). “Leisure an Self-actualization.” In B. Driver, P. Brown, and G. Peterson, (Eds.), *Benefits of leisure*(pp. 91-102).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Hudman, L. E. and Richard, H. J(1992). “Mormon Pilgrimage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 Research*, 19, 107-121.
- Pfaffenberger, B(1983). "Serious Pilgrims and Frivolous Tourists: The Chimera of Tourism in the Pilgrimages of Sri Lank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 57-74.
- Ross, G. F., and Iso-Ahola, S. E(1991). "Sightseeing Touris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226-237.
- Schmidt, C. and Little, D. E(2007). "Qualitative Insights into Leisure as a Spiritual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2), 222-247.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토론문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한국의 역사적인 전통 사찰은 일반인들에게 단지 관광하는 곳이었으나 템플스테이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전통사찰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시켜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불교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찰에서의 행위는 종교생활이었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도, 수행, 예불, 108배, 참선, 동안거, 하안거 등 그야말로 고행(?)에 가까운 사찰생활은 스님이나 불교신자가 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문화재 관람하고 기념품이나 사가는 정도만 할 수 있는 행위였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시행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사찰생활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템플스테이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체험은 일반인들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템플스테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치밀하고 의미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전반을 이해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야 한다.

최근 많은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수용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그동안 템플스테이를 시행해온 사찰의 인지도와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 중에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취득하려는 엉뚱한 생각으로 접근한 사찰은 없는지 궁금하다. 템플스테이가 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자연경관, 문화재, 사람과의 만남, 심신수련 수양, 자기성찰, 휴식, 검소, 검박 등 현대사회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체험프로그램이기에 쉽게 생각해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거나, 또 하려는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체험이 인간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찰운영자들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이득이나 사찰 홍보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원에서 마련해줄 필요는 없는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산사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모든 템플스테이가 유사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찰마다 그 사찰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찰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국 사찰생활의 보편성과 그 사찰만의 정체성을 혼용하여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수가 점점 증가되고, 이를 수용하는 사찰의 수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늘여가고 있다. 전통사찰이 아닌 현대사찰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 증가가 경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건축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에서는 새로운 시설이 기존에 기억되고, 고착된 고유한 경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규모가 작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시설규모가 클 경우 문화재 또는 문화재주변 경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문화재영향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사찰측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영향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관련시설 증축 문제는 역사문화 경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사찰 운영자들의 역사문화 환경 및 문화재 경관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MEMO

MEMO

11/11/2023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2.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all data is entered correctly and consistently to avoid any discrepancies or errors.

3.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and technique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4. These methods includ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each with its own strengths and limitations.

5.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detailed overview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data collection process.

6. These results are presented in a clear and concise manner, allowing for easy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7.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how they can be applied in practice.

8.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broader context and potential limitations of the study when drawing conclusions.

9.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summary of the key points and a final conclusion.

10. This summary serves as a concise overview of the entire document, highlighting the most important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1.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includes a list of references and sources used throughout the study.

12. These referenc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nd context for the reader, allowing them to explore the topic further.

13. The seventh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appendice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14. These materials provide additional data and information that support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15. The eighth part of the document includes a list of figures and tables, which are used to present the data in a visual format.

16. These visual aids help to clarify the data an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e study.

17. The ninth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footnotes and endnotes, which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nd references.

18. These footnotes and endnotes are used to provide additional context and information for the reader.

19. The tenth part of the document includes a list of acknowledgments, which thank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ed the study.

20. These acknowledgments recognize the contributions of others and provide a sense of appreciation for their support.

21. The eleventh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uthor and other relevant parties.

22. This contact information allows the reader to reach out to the author for more information or to discuss the study further.

23. The twelfth part of the document includes a list of declarations and statements, which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uthor's qualifications and the funding of the study.

24. These declarations and statements are used to ensure transparency and provide additional context for the reader.

25. The thirteenth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references and sources used throughout the study.

26. These referenc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nd context for the reader, allowing them to explore the topic further.

27. The fourteenth part of the document includes a list of appendice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28. These materials provide additional data and information that support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29. The fifteenth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figures and tables, which are used to present the data in a visual format.

30. These visual aids help to clarify the data an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e study.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